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國際教育會議

根本精神에矛盾이업게하라

歷史的轉換期에잇는現代世界는 各方面으로 그 離奇한 新事實에 百計가오히려不足한觀이有하다 國際聯盟, 軍備縮少等 그 數를 擧하기어려운 事이 잇다. 然이나 世界의 政治家나 學者가 그 許多한 고 無效에 近한 會議를 斷念치 아니하며 一般民衆이 또한 世界平和云云의 旗下에 開催되는 國際會議에 反對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會議의 決議에 對하야는 何等의 實權의 無한 弱者 小弱民族 外지도 一縷의 企望을 囑함이 잇슴나니 이에 對하야는 勢不得已한 理由가 잇슴을 認識하는 同時에 吾人은 所謂 國際會議에는 表裡가 잇는 것을 看破치 못할 事實을 觀破하고자 한다

昨日本紙에 報道한 바 國際教育會議는 來六月二十八日부터 七月上旬까지 桑港에서 開催된다는 이 것은 昨年八月에 米國各民教育協會의 大會席上에서 決定한 바에 依하야 五十餘個國에 案內狀을 發하엿던 結果다. 參加國家가 四十餘個라 하니 一大世界的 會議라 고도 하리라. 그 目的으로 表明된 文句에 依하면 「友情과 正義와 善意가 地球上 各國間에 流布되게 하며」 「모든 民族의 權利와 特權을 世界的으로 容認하고 國民性의 價値와 天稟의 才能을 尊重」하며 「國民的 友人關係와 信賴를 養成하고 戰爭의 罪惡과 世界平和에 必要한 人類의 協同을 高調」하며 「이 地球上에 無教育者가 全無하게 할 方法」 外지도 考慮한다 하니 吾人이 그 大體에 對하야는 同意를 表하면서 一言을 加하고자 하는 것은 今日에 流行하는 國際會議에는 그 會議自體의 根本精神에 缺陷이 有하다 함이니 世界平和는 民族的 平等이 實現되지 아니하면 그는 虛言이오 空談이다. 그 標語와 宣言이 公明正大하야 잇슴을 不拘하고 亦然强한 國家나 民族이 弱한 者를 干涉하며 支配하고 搾取하는 實在에는 何等의 變化가 업스니 무엇보다도 分明히 近來 國際會議의 結果가 이것을 實證하지 아니하는가. 이러한 根本精神을 變更하지 아니하면 今番의 國際教育會議도 亦是 强者國民의 自己地位 維持에 對한 利己的 計策으로 終始하고 말 것이다. 勿論 資本主義 政府가 現存하고 그 政府의 意見과 費用으로 開催되는 國際會議에 對하야 그 根本的 精神의 缺欠을 指摘하고 그 變更을 高唱하며 現狀 打破의 精神을 鼓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要求한 言論으로 無用한 苦言을 表示하는 것은 아니다. 然이나 世界의 平和를 圖謀한다는 以上에는 世界의 現狀을 이대로 維持하면서 이것을 是認하고 이것이 便宜한 줄로 自信하는 精神을 拋棄하기 前에는 「友情과 正義와 善意」를 地球上 各國間에 流布하게 하라 고 한다」는 것도 亦是 虛言이 되고 말 것이니 國際的의 紛糾를 根本的으로 防止함에는 이 國際的 教育會議의 必要와 價値는 充分히 認定하지만은 今日과 如히 一民族이 他民族을 壓迫하고 搾取하는 것을 是認하는 그 精神으로 世界平和를 云云함과 「國民的 友人關係와 信賴를 養成한다」고 하는 것은 너머나 過히 自家矛盾이 多大한 줄 잇는다. 그럼으로 今番 教育會議에서 眞實하고 誠意잇는 效果를 期待할진댄 在來의 資本主義的 精神을 拋棄하고 赤裸々한 一個人間의 良心의 命令에 聞從함을 覺悟로 臨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國際教育會議의 必要와 價値는 人間平等의 信念과 人類愛의 精神을 實現하기 爲하야 教育的 手段에 依하자는 點에 잇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人間對等의 價値를 教化的方法으로 國際間에 實現함이 그 理想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그럼으로 單純한 教科書의 訂正이나 教育者의 交換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民族的으로 教育上 機會均等을 講究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民族的 教育上 機會均等을 實現에는 民族間에 在한 政治的 壓迫과 經濟的 搾取를 撤廢하지 아니하면 不可能할 것이니 世界平和에 貢獻하려는 國際教育會議의 目的을 完全히 實現하기 爲하야 그 前提로 民族的 拘束撤廢에 努力할 理由가 잇다. 故로 吾人은 國際教育會議에 同意를 表하는 同時에 實質上 矛盾이 업도록 今番에 發表한 그 目的의 實現에 努力할 賢明한 態度로 그 根本精神에 矛盾이 업기를 바라노라

中國思想界의 新現象 (廿四)

愚樵 (譯)

研究系政治哲學(續)

以上 梁啓超氏의 解說은 民主主義를 標榜하는 孫文氏以下民黨이 墨子에 徹底的으로 共鳴할 수 업는 所以를 明確히 한 것이나 그러나 될 수 잇는 대로는 墨子를 擁護하려고 하는 梁氏는 墨子가 人民은 天子에 追隨하여야 할 것이라고 論한 것은 天子가 天下의 仁人이라는 것을 認定한 外에이다. 그럼으로 墨子의 所謂 天子는 世襲的의 天子로 볼 수는 업다고 解釋하고 墨子의 所謂 天子를 共和制의 大總統에 比較하려고 하엿섯다. 然이나 梁氏는 墨子의 尙同主義나 賢人政治라고 하는 것에 論及하야 曰 墨子와 가치 知者가 政治를 하면 愚者는 則治되고 愚者가 政事를 하면 智者는 則亂하리라」고 하면 現代의 代議政治는 全然 否定될 것이다. 墨子의 理想的 社會에서는 各人의 權利는 少數으로는 되겟스나 然이나 個性이 無視됨으로 果竟은 大端히 不自由한 社會가 되리라고 解釋하고 墨子의 理想으로 하는 政府를 勞農露國의 政府에 比하고 이 點에서는 墨子는 結局 道는 並行되는 것이오 相悖되지 아니한다」는 孔子의 게 未及하다고 하엿다. 墨子의 自由意思의 徹底하지 못한 것을 遺憾으로 하엿다 梁啓超氏의 見地 以上은 梁啓超氏의 墨學硏究의 大要다 이에 依하야 梁啓超氏가 黃帝以來 有巢氏의 大同學說의 根本精神에 模倣하야 墨子를 中心으로 하고 中國固有文化와 西洋文化의 接觸點을 求하얏다. 이것을 利用하야 自家의 政治哲學을 論하얏다 그 學說의 基調를 삼고 畢竟은 自由主義 哲學에 依하야 中國思想界의 統一을 作하려는 그 苦心의 跡을 看察할 수 잇스며 倂하야 梁啓超氏를 中心으로 하는 研究系의 中國思想界에 對한 見地及 中國思想統一問題에 對한 研究系의 抱負를 察知할 수 잇슬 것이다. 萬若 將來에 現實派에 屬하는 孫文氏 一派의 國家社會主義者가 再次 極端的 獨裁主義에 入하는 傾向이 잇슬 때에는 理想派에 屬하는 研究系의 思想家들은 自由主義의 傘下에 結束하고 이에 對抗하리라 이 點에서 보면 孫文氏가 前에 一部로 受諾하던 民黨의 赤化를 未然히 防止하고 從來의 社會民主主義를 强化하야 갈 뜻하며 社會主義의 光栄을 表示할 듯이 보이던 政策의 一部를 拋棄하게 된 것은 如上 研究系의 自由主義 宣傳의 오히려 多大한 助力이 된 것이라고 考察하노니 이것은 民黨으로 하여서도 大段히 賢明한 進路를 取한 것이라고 評할 것이다. 또한 中國思想界라고 하는 大局에서 觀察하더래도 思想上, 政治上 現在의 中國에서는 가장 有力한 二大黨派의 表現이니 新傾向은 實로 各派統一의 前途에 一線의 光明을 與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勞働運動의 新傾向

急進에서 漸進에 中國의 맑스主義者中 가장 有力한 地位를 占하고 잇는 陳獨秀氏가 昨年八月上海의 民國日報紙上에 發表한 「現在中國政治問題에 關한 私見」이라 題한 論文은 中國에 잇는 맑스主義者의 急進에서 漸進에 가는 轉換을 意味하는 重要한 表現이다 該論文의 要領은 如左

人類社會는 治生의 方法으로 그 經濟的及政治的 組織은 이것에 伴隨하야 不斷的으로 進步하는 것이다 그러하야 不斷的 進步의 過程中에서 保守派와 革新派, 壓迫者와 被壓迫者의 不斷의 爭鬪는 아모리 하더래도 免치 못한다. 이 爭鬪中 가장 顯著한 것은 第一 資產階級對封建의 爭鬪와, 第二 無資產階級對資產階級의 爭鬪다 中國現下의 政治社會는 上揭한 第一에 合當한 것이니 即 帝制는 이미 轉倒되얏스나 그 帝制의 遺物인 軍閥은 아즉 嬰滅를 任意로 하고, 中央及地方의 政治財政權을 占有하야 全國의 法律을 蔑視하며 軍閥相互의 私鬪로 因하야 全國을 戰禍中에 置하고 財界의 恐慌을 誘致하야 商工業의 發展을 阻止함에 이르다 그리하야 이것에 對抗할 만한 政黨의 現狀은 如何한가 하면 그 實力이 極히 薄弱하야 軍閥者流와 相敵할 힘을 具有한 者 全無하다. 오직 國民黨은 終始一貫하야 革命的 精神에 依하야 軍閥打破에 努力은 하나 黨員이 少數니 아즉 그 目的을 達할 運에 이르지 못하얏다. 右現狀을 考察하야 余는 爲先 大小資產家가 一致하야 大政黨을 組織하고 그 團結力으로써 軍閥打破의 方法을 講究할 必要가 잇다」 即 資產階級의 民主運動이 必要하다고 하노라. 그리하야 그 成功을 俟하야 새로히 無產階級의 結合을 作하고 이것으로써 資產階級에 對하는 階

懸賞當選漢詩

茂亭 鄭萬朝 選

飛行機 (五絕押支) 劉 囲 (賞乙)

飛傲大高空。行頭到險夷。機能隨動靜。人化哭神祇。

評曰 詩亦可以哭神

同 鄭亨韓 (賞丙)

萬里飄搖勢。半天起戾俠。浮遊空氣上。却怕冷難支。

評曰 如坐飛行機上

同 宋泳楷 (賞丙)

天地許空闊。江山失險夷。三邦無用武。千載獨傳奇。

評曰 筆力宏長

初夏田舍 (七律押陽) 金榮淑 (賞乙)

數椽枝杆屋向陽。麥將秋嶺苽初黃。鶯落新巢蘋花淡白芥花置末房。力食居然忘苦樂。勞生何暇說閑忙。偏中風韻坊諧道。蛙鼓鶯簧助進觴。

評曰 盛唐風調

同 金炳璨 (賞丙)

天氣清和入正陽。槐陰門巷日方長。柔桑溢箔蠶將老。新麥登場午飯香。梅子垂簷茅屋角。瓠藤引蔓竹籬傍。從此田間事々忙。耕耘未罷移秧始。

評曰 淸麗圓亮

物產獎勵 (七古押東) 李學雨 (賞甲)

所曉民散非一日。居遊偷生不愧窮。槿花世界成溫帶。厥土厥賦大差豐。野宜穀絲桑稼漆。礦饒金銀煤鐵銅。男解讀耕女勵紅。閉門辭遇化。四千載。至今服守玄古風。熙來穰往廿世紀。鐵血相爭角群雄。設關稅抽出入。挽輪省力理織通。優勝劣敗是公理。豈其帝吾異西東。聞昔楚亭稱博識。陳疏極繁拔其如克不幸際。茲有銀貨與貢皖。芝憂仲々。詩云謂戶人誰侮。吾稱坐食山亦空。喚醒頹俗有要道。上下效捷而通。勸以重實方進步。不恭貧弱但勸之緩頰庶回蒙。鼓舞。常是係功。

評曰 典雅剴切君子之言

同 朴元 (賞乙)

我食我衣由我工。無窮花色無...

評曰 回看十載頹波裏。出小入多...

同 尹圭殷 (賞丙)

...雨煙雲。新巢生計...。西天朔風...。豐饒耕功...。米...。鐵...。平鐵...。爭鬪。天地...。約物々從今交易...。北...。

評曰 語簡意深又詩家風調

▽當選詩調▽

들에가자 (賞甲) 鳴 薈

연장메고 사립나니 종달새우지진다 ─
아희야 들에가자 검정소너도가자
묵것은 이 땅건빗음 이 커갈가하노라

웃음 (賞甲) 晴村 李秩英

人生이 草木이면 웃음은 꽃치니라
꽃업는 草木이야 兩年이라기다하라
하드리 웃고사세라 웃을우리봄세다
○
웃음과 울음이거 무엇이 다르관대
남들은 나를보고 웃네우네하시는고
웃는듯 우는안이야 뉘아실고하노라

꿈 (賞乙) 天涯

의리로나오실外헤 느러노흔 꿈의자락
알미운비바람의 시심만부놀랏다
님에서 지나신뒤면 삭아진다 슬퍼라

나의所願 (賞乙) 成元英

運命의검은구름만대로휘모라서
하늘빗새진듯한 숙낙비만쏟파저
그뒤에 靑天白日이 뉘것일고하노라

저녁시내 (賞乙) 世曉昇

구비진 시내가에 쌤내하는 새아씨네
겯닌해지다하야 구래도라가려마소
밝은달고요한빗치 고대올줄아소서

先導者 【60】

長白山人

중편(小說) (六의三)

리선생은 말릅이어

「내생각에는이러케 위래한벼슬사룩 더욱힘을써야 합것이라고합니다 본한생각과 큼한생각으로 어서어서 일어나자고만하면 영영일어날뿐 업셔지리니고마듬니다 나라이 망한다하나아직도 망할째가 멀엇습니다 앙위? 그것이무엇이 그리중하냐가 옛날이아니하야 한국이아조일본의 령토가되고만 날도온것이외다 그러나 그것도아저나라이아조 망하는것이 아니외다 장차는 한국땅에 한국사람의존자가 업서질것이 올것이니이것이 정말 나라이 망하는 날이외다

「그러닛가 양위라든가합병이라든가 이것도다 웃음거리여저아지요 우리가 아주멸망하지아니할길을 취하여야 할것이외다…… 그러하는 길이 무엇인고? 림참길은는것이외다

「만일백령회원이 이만명만되고우리손에 백만원만 잇고나라일을 할만한 일군이 천명만 되다하면 금시에라도 넘어가겟지마는 아모 힘도 업시 넘어나는것은 도로혀 한편으로는 국가의 운명을 재촉하고 한편으로힘을 긔를 긔회만 일허버리게하는것입니다

『백령회入동지들도 요새에는 날마다 와서 줄돕니다── 이째에 아니넘어나면 언제넘어나느냐고 조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움지기는것이 나라에 해가 잇습지언정 리익이 업슬것을 확실히 밋기때문에 혼자 입을 물고 참아가며 힘을 길으기에 전력을 다하는것이 나라를 위하는것인가합니다

「림참령!」 나는 참아 애국의 열정으로 나온 그계획을 반대할용긔가 업습니다 당장에림참령을 따라나가고십허요!」

「그러나 림참령! 한번더 감히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 오는 일년동안에라도 우리의힘을 한곳으로 모와보셔요」

그만 림참령은 목이 노하 울엇다 리선생도 가치울엇다 두사람이 슬히우는 울음소리는 안팟게까지 들렷다 차를들고나오면 선경은 원일인지 모르고 우둑허니섯다가 돌오 제방으로 들어와 그도 울엇다

에 우나? 우는사람들도 다 뜻을몰낫다 다만 터지나오는울음을 맘을수가 업서서 운것이다 하릅며 다른사람이야 그네의울음 터지는속을 알아줍순둡잇스라 림참령은 말업시인력거를타고 집으로향하엿다 골목ᄉᄉ이 파수보든 일본병뎡과 조선병뎡의 총창만희미한 던등入빗에 번적어리고 검이나서시민들은 나와다니지도아니하는 모양이다

거의집에까지 와다가 림참령은 인력거부에게 군부대신入집으로 쑤라고 명하엿다 군부대신은 마츰 몰감부에서 각의를 하는 군대 해산에 관한 의론을하고 돌아와서 아즉군복도 벗지아니하고잇다가 림참령의 명함을밧고는 잠간눈사삼을 씹흐렷스나 참아 거절은못하엿다

서양식으로 차린 유쾌심에 듯어가 사오분이나 기다린뒤에 뚱ᄉ한 군부대신이 훈장단 군부장의군복을납고나왓다 림참령의 몹한 낫빗을보고는 잠간주저하는듯하더니 수인사를하고 교의에안는다

림참령은 눈이 부시어하는듯한군부대신의얼굴로 바라보며 「대감에졈 뭇좁어볼말슴이잇습니다……일간군대를해산하신다지오?」하는그말소리는 심히 날카라왓다

「응?」하고군부대신은어린쏭쏭모르는드시 놀라더니「그런말을 어듸서 들엇소?」

「비 그것은 큰비밀이겟지오 군부대신 부관으로 잇는나도모르는 비밀이겟지오아마 대감과 트신 어른네와 일본사람인차관들만 아는비밀이겟지오」하고 림참령의어성은점々험하게된다

新定 朝鮮教育研究會編纂

普通 朝語問答自習書

定價金 卷一, 二 各十錢

本書編纂의 經路聲明

新定 普通 國語自習顧問

定價金 卷一로八卷까지 各十錢

改修 高等 國語術語釋義

卷二……出現!!!

本書의 目的은 … 內容 … 形式은 … 分量은 …

●朝鮮語 ●國語

京城府 … 廣文書市

◎春期割引大賣出◎

(自三月十五日 至四月十五日 外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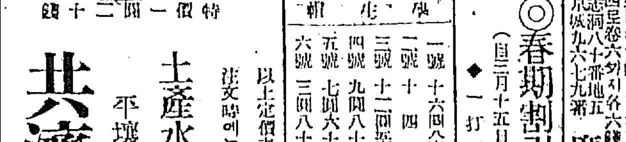
◆一打에 對한 價格◆

學生帽	
一號	十六圓
二號	十四圓
三號	十二圓五十錢
四號	九圓八十錢
五號	七圓六十錢
六號	三圓八十錢

打鳥帽	
一號	二十圓
二號	十四圓
三號	十四圓
四號	五圓
五號	四圓

以上定價表에서 一割引으로 賣出함

注文時에는 多少의 先金을 要함



特價一圓二十錢

土產水木帽子具備

平壤府西門通

共濟商會

日收三圓

◙滿六箇月保險證付◙

本品에 堅實함을 保證키爲하야 滿六箇月以內에使用치못하게될境遇에는 何時든지新品으로交換함

東亞總本部

KAKUTA

優良고무靴

本店 大阪

合名會社 西村商店護謨工業部

京城府鍾路四丁目交叉点

西村護謨工業部出張所

하믈레트

쉑스피아原作

玄哲譯述

定價金壹圓●書留送料九錢要先金

그대는쉑스피아의하믈레트를읽은일이잇나

하믈레트를읽지못하고는文藝를말하지말라

世界의名作悲劇하믈레트는 歐米에서는 이미 …

京城府 … 博文書館

團成社 · 朝鮮劇場 上映

大魔王 · 荒原의銃士 · 鐵拳의戒 · 附錄의惡漢 · 十年前 · 紅葉門 · 養女 · 松竹

地方特約店及事務員採用

京城府 … 貿易商 金吉永商店

謹告

拜啓今般弊店에서內外物產을原產地로直輸入하와 … 應하오며親切히廉價利本實를目的하오니 一次試用하야주시옴을務望하옵나이다

京城府蓮池町一丁目二○番地

穀物貿易 · 酒類 · 麥粉 · 砂糖 · 綿布 · 內外雜貨 · 各種肥料 · 朝鮮海產物 · 各種食料 · 金融貸附 · 委托賣買 · 運輸業

金吉永商店

各色十二種 半個年保證

織女票新案 별표고무靴

京城府並木町貳百七拾六番地

京城織紐株式會社

社長 金性洙

電話 本局 一八一八番

振替 京城 四一一七番

ClibPDF - www.fastio.com

佛國內閣總辭職

佛國「포앙카레」內閣은突然總辭職을行하얏더라(巴里二十四日發)

佛國兵又復增派

佛軍은「루-르」地方에서染料其他化學製品을列車一臺에滿載하야佛白兩國으로輸送한바佛國은非事的壓迫下에更히完全히「루-르」地方의物資를開發키爲하야占領地로向하야更히一萬의兵을派하얏스며又「스트라스부르」에는方今佛領黑人兵이守備하고잇는바彼等은佛獨語를共히通치못하야地方人民에게多大한不安의念을惹起케할뿐안이라一般婦女와處女等을凌辱한다더라(伯林二十四日發)

英閣員銓衡經過

「커손」外相은留任決定

「볼드윈」內閣의組織은急速히進行中인바二十五日에全閣員의候補를發表하게될터인대「커손」卿의外相留任은旣히決定되얏고「로바-트·혼」氏의藏相就任에關하야는二十二日其承諾의旨를傳하얏스나事實은尙히疑問이며又「볼드윈」氏의後를襲하야下院의首領되기를懇願하는中인「오-스틴·첸바렌」氏及「로바-트·세실」卿도又入閣을勸說中이라더라

陸相亦留任決定

陸相「더비」卿은留任하기로決定하얏고「쓰펜·윌손」氏는引續統一黨의幹事長에留任하기로決定하얏더라(倫敦二十二日發)

廿五日頃發表乎

「볼드윈」內閣의組織은急速히進行中임으로二十五日에는全閣員의氏名이發表케되리라더라(倫敦二十三日發)

希土關係缺裂乎

「로-산느」로부터來電에依하면希土兩國은漸次決裂될徵兆가有함으로更히妥協案을考慮中이라더라(巴里二十四日發)

陰謀煽動으로告發

愛蘭自治同盟會長以外四名

過激派團으로부터英本國으로歸還하는許可를受한愛蘭自治同盟會長「아-트·오부라이엔」을爲始하야「선-아크랏스」「신오마호비」「미가엘·길빈」의四名은「포스트-트」裁判所에서陰謀煽動罪로告發되얏더라(倫敦二十二日發)

墨國大火

中國人區域全燒

墨西哥「칼리포니아」半島에在한「메키시카리」來報에依하면同地華人活動寫眞館에서大火災가起하야中國人居留區域四哩四方을燒燼하얏슴으로中國人一百五十名은行衛不明이되고屍體十五가發見되얏는데其損害는大略五百萬弗假量이라더라(로산쩰스二十三日發)

露政府結局讓步

安協的讓步條件을漏洩

露國代表「크라신」氏는廿三日英國外相「커-손」卿과會見하고英國의抗議에對한露國의回答書를提出하얏는데露國은英露의國交斷絕을因하야一般的平和에及할惡影響이多大할을恐하야安協的讓步條件을漏洩하고尙且「치체린」氏를派遣하야英國代表와會見하고兩國의爭議에就하야面議케하고자懇請하얏더라(倫敦電)

英對露態度變更乎

「볼드윈」氏가新首相이된故로勞農露國에對한態度는若干變化되리라고觀測되더라(伯林二十四日發)

露國復辟新陰謀

獨逸의「홈마데」將軍과露國의「키릴」大公及伯林에在한復辟委員間에는獨逸將校의一隊로서「페트로그라드」를奪取코저하는新陰謀를計劃되얏다더라(巴里二十四日發)

大總統新選問題

國會議員의意見一致

外交總長으로任命된顧維鈞氏와財政總長으로任命된張英華氏의就任에就하야政府에서는兩總長이共히就任하리라고樂觀하며又政府部內에서는憲法起草에對한國會의議論도通過하고省自治의原則에就하야意見이一致된故로安協에依하야解決되리라하는데國會議員은來十月十日로써新大總統選擧를行하기로意見이一致하얏다더라(北京二十二日發)

張財政總長就任

張英華氏는二十四日午後에正式으로財政總長에就任하얏더라(北京二十四日發)

新總長財政緩和努力

二十四日財政總長으로就任한張英華氏는旣히財政窮迫을緩和할만한成案을得한듯한바傳聞한바에依하면各銀行으로부터六十萬圓式의小借款이成立되얏다하며又鹽稅를條件으로五百萬圓借款을交涉中이라더라(北京二十四日發)

河南에又土匪猖獗

警察署長의四女를拉致

河南土匪는益々猖獗하야信陽地方에서土匪의一團은該警察署長의家族을掩襲하야其四女를拉致한後一名에就하야三萬元의身代金을要求하얏스며又臨城縣土匪는最近郵便物을月々히橫奪하야捕虜外人과其他山寨로가는郵便物을取扱한다더라(北京十四日發)

土匪要求承認乎

王正廷氏反對意見發表

津浦事件에就하야北京政府는外人捕虜의返還條件으로
一、土匪首領孫美瑤를土匪旅團司令으로承認할事
一、土匪軍을政府軍으로承認할事
其他十土匪의要求全部를容認하기로內定하얏는데王正廷氏는二十四日北京「데일리뉴-스」紙에反對意見을發表하얏더라(北京二十四日發)

內務總長逃避

內務總長高凌霨氏는部員의不穩한態度에因하야二十五日午後에遂히天津으로逃走하얏더라(北京二十四日發)

直通交涉進捗

中東、露國兩鐵

中東鐵道와勞農露國鐵道間의直通問題는昨年來의懸案이든바兩者의交涉이漸次進捗되야中東鐵道側에서는旣히直通列車의編成을終了하야當局의命令을受하는대로直時發車케될바一列車는二三等客車九輛으로組成되얏는데一、二等車內에는電話와沐浴設備가有하며喫煙室과如함도至極히華美하야從來露國寢臺列車會社의列車에比하더라도何等의遜色이無하리라더라(哈爾賓二十四日發)

日露修交其他

加藤首相談

日露修交에就하야政府에서는何等의異議가無하나然이나兩國間에는複雜한問題도有함으로目下外務省에서各方面으로研究中인즉그結果를待하야後藤子에게與否를回答할터이며又利權移讓에就하야도主義로는贊成이나十三年度부터實行할與否는明言키難하며實業家가政治를研究한다하는事는何等關係될바가無하나此際에政黨을造作한다하면各方面에對한影響도不少할터인즉其是非는表明키難하도다

地方長官訓示中에新政策의發表가無하얏다하나政府의政治方針이라는것은自由로發表될것이요長官會議에서만發表할것이안일뿐이며又恩給金制度의設定은論議는有하나아직具體的으로는考慮치안이하얏스며義務教育의年限延長도主義로는贊成이나此는財政에도關係가有한故로直時延長할可否는亦是明言키難하도다云々(東京電)

普選實施時期

十七年說有力

水野內相을委員長으로한普通選擧調査委員會는旣히普選의基本調査를終了한故로不遠에成案을作成한後特別議會에諮問하야解決케될터인대實施期는十七年總選擧부터施行하리라는說이有力하더라(東京電)

永田氏當選乎

東京市長後任

東京市長候補로推薦된勝田氏가辭退한故로二十五日에行할市長選擧는公友會에서永田氏를全會一致로投票할터인바五十票以上...

物價調節決議

商議聯合總會

二十四日商業會議所聯合會總會에서는物價調節에關하야左와如히決議하얏더라(東京電)
一、官民의一致하야物價調節委員會를組織할事
二、東京에本部를置하고大阪에支部를設置할事
三、總理大臣을委員長으로하고府縣知事를支部長으로하는委員會를組織할事

實業團總同盟

商工黨에刺戟

武藤山治氏의商工黨에刺戟되야星野錫氏를會長으로하는全國三千餘의實業組合은全國實業組合聯合會總同盟을組織코저目下準備中인바萬一此가成立되면百萬의實業家를抱擁하는大團體가될터이며此는無論經濟同盟이요政治同盟이아니나確實히成立될時에는旣成政黨은不少히威嚇케되리라더라(東京電)

視學會議에訓示

二十四日부터南山町附屬小學校內에서開催한道視學會議는昨日에도繼續하얏는바有吉總監의訓示事項은左와如하더라

有吉總監訓示

一、道視學官의制度實施後처음으로各位가同會하야玆에親히地方學事의實際와各位의苦心經驗의情況을聽取함을欣幸으로思하는바이로다向學心의勃興과教育施設의發展에伴하야朝鮮의教育行政은比年重加함에至하얏스며學務課長으로나又는視學官으로나各道의教育行政主管에當하는各位의責務도亦是加重하얏다云할지로다그럼으로各位는朝鮮教育令의趣旨에鑑하야又所管事務에精通하야管下의實際를究함은勿論이어니와恒常管下各般의施設에注意하야教育施設이偏重偏頗의弊에陷치아니하도록最急에其宜를制하야健全한教育의進步發展을期케할지로다

二、朝鮮의現狀에在하야實科教育의振興에努力함은一日도無休할바이라教育令의改正에依하야此等緊急한方針에異動을抱한者이不無할뿐아니라如히誤解를抱한者도不無한듯하나其局에當하는者는特히監督官바이로다學校의增設과教育의普及은可喜할者이나青年子弟의勤勞를忌하고浮華에流하며虛榮에走하야實業을輕視함과如한學風의蔓染이有함은國家社會前途에深憂할바이라各位는善히普通教育에對하야恒常實科趣味의涵養과實作業의訓練에細心의注意를加하야

三、近時教育熱의勃興에伴하야學校의增設費及補助經費의負擔이漸增하야人材의養成에努力하야서라有用한人材의養成에努力할지로다

學務局長指示事項

一、中等學校入學試驗準備에關한件
二、教員講習會에關한件
三、公立學校職員給與에關한件
四、普通學校々舍에關한件
五、私立學校의指導監督에關한件
六、教科書編纂의趣意에關한件
七、教科書供給에關한件
八、基督教會等法人許可의件

昨年豫算剩餘

約一千萬圓

大正十二年度總督府豫算은一億四千五百六十餘萬圓인바此中의歲入中에는十一年度剩餘金中의繰入額五百三十八萬一千百九圓을議入豫算에豫想하얏스나果然十一年度에는如何의剩餘金을捻出할는지本月卅一日後의決算을俟할必要가有하나此等其他의事情을綜合하면約一千萬圓內外의剩餘金을計上할터이라더라

官有財產問題

現在朝鮮에는國有財產法을施行치아니하야官有財產의整理에關하야는何等準據할法規가無한것으로相當한不便을感함은아니라朝鮮에는官有에所屬할財產의範圍가比較的廣汎하야整理統一의急을認하며一方中央政府大藏省에서는官有財產의管理及處分에對하야統一的으로現在의國有財產法(昨年四月一日施行)을適用할方針으로各當局에交涉을...

水利資金漸增

朝鮮內에水利組合은現在六十六個所로蒙利面積四萬四千二百三十九町步事業費는二千八百萬圓이며目下計劃中에屬한者가約八萬町步로事業費四千五百萬圓을拔하는바此等水利組合에對한資金은從來低利資金으로殖銀及東拓에서供給하는데最近의貸出高는殖銀은五百六十二萬餘圓東拓은七十餘萬圓의增加를示하얏다더라

小會社의簇出

客月中新設과解散

朝鮮銀行調查에依한四月中의朝鮮內新設會社는朝鮮殖産銀行株式會社外三十六社로此의公稱資本金은四百二萬九千圓인데小資本會社가多數設立되얏슴은客月中의特異한現象이며一方既設會社의移動을見하면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市場外一社公稱資本百八十八萬六千百圓의增資가有하얏고全北商事株式會社外三社公稱資本九十五萬二千五十圓의減資가有하얏스며又京城信託株式會社外八社가解散하얏스나其資本은五百六十九萬圓임으로客局前月末에比하야社數는卅一社가增하고公稱資本金은七十八萬六千九百五十圓이減少하얏스며四月末日現在의朝鮮內에本店을有한會社總數는株式會社五百八十五、公稱資本四億八千九百二十八萬七百五十圓이요合名會社一百七十九、公稱資本一千四百四十七萬五千四百三十五圓이요合資會社八十四、公稱資本二千七百二十一萬六千七百十三圓으로合計九百四十八社公稱資本五億六百九十七萬二千八百九十八圓을示하얏스며又次에日本及其他外國에本店을有한會社로

支店

을新設한者는株式會社鈴木商店外二社인바其公稱資本은八千六百一萬五千圓이요其外에資本의增減과解散이無하얏스며四月末現在의支店有社는株式會社는九十八社公稱資本金七億四千七百六十四萬九千四百米貨一萬六千六百三萬弗이며合資會社八社公稱資本金六百三十二萬五千圓이요合名會社三社公稱資本金五千六百十二萬圓으로合計百九社公稱資本金八億四百五十八萬四千圓米貨一萬六千六百三萬弗이라더라

頭取로就任乎

滿銀 嘉納鮮銀副總裁

嘉納鮮銀副總裁는六月任期滿了와共히鮮銀을辭職하고滿洲合同銀行頭取에就任한다더라

殖銀公共貸付額

殖産銀行의四月公共團體貸付額은四千四百六十四萬二千七百九十五圓인바其內容은公共團體五百七十四萬八千八百七十二圓水利組合聯合會二千一百五十萬四千六...

林野調查會議

總督府林野調查委員會는來二十八日午後一時부터第一會議室에서開催하고林野調查에關한事項을協議할터이며同三十一日에도午後一時부터會議를開할터이라더라

事務取扱處所

林野調查委員會規則에依하야六月一日부터林野에關한事務를取扱할處所는左와如하더라
京畿道 楊州郡(但抱川郡 金浦郡 忠淸北道 清州郡 忠淸南道 舒川郡 瑞山郡 全羅南道 羅州郡 咸鏡北道 淸津郡

價格表記郵便物

大正十一年度京城府內各郵便局所에서取扱한書留及價格表記郵便物數의總計는五百五十七萬四千七百六通으로此를前年에比較하면引受에八分六厘의增加이더라

鈴木理事昇進

東拓理事鈴木島吉氏는不遠에副總裁로昇進하고東拓의總裁는六月의任期滿了와共히滿洲合同銀行頭取에就任하리라더라

新用教科圖定價

今年度부터使用할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及各學校教科書의定價는左와如하더라
普通學校修身掛圖(第一學年)
一組 金七圓六十錢
朝鮮地方分圖
南部 軸裝 五圓三十錢
袋裝 五圓
中部 軸裝 五圓
袋裝 四圓七十錢
北部 軸裝 五圓三十錢
袋裝 五圓

廣告郵便增加

遞信局調査에依하면大正十一年度全朝鮮郵便局所에서取扱한廣告郵便物은引受二百九十八萬六千百七十三通配達八百五十三萬四千五百九十五通으로此를前年에比하면引受에一割八分七厘의增加이라더라

滿洲救濟東拓讓步

滿洲救濟에關하야東拓에서는何等의利子를五百萬圓의程度로鮮銀과共同하야其他救濟를加하기로一割의利子를五百萬圓假量으로讓步하게된다하며大藏當局의勸說의結果로近々決定되리라더라

海員養成生徒募集

遞信局仁川海員養成所에서는今般航海生徒及機關生徒를募集하는데入學願書는六月十五日까지提出할것이라더라
一、入學資格 年齡十六歲以上二十二歲以下로高等普通學校第三學年修了程度以上의學力이有한者
二、入學試驗期日 六月二十日
三、試驗科目 體格檢查 學科試驗

朝鮮生命支部會議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에서는本年度第二期支部長會議를六月二十四日午前十時부터三日間本社樓上에서開催할터이라더라

辭令

朝鮮總督府事務官(七等) 前田 昇
總督府事務官兼參事官 鳩澤 義
總督府事務官 樹川 島吉
總督府屬 野川 正

消息

◀李圭完氏(咸南道知事) 二十四日午後十一時十分發安東縣으로
◀吳台煥氏(全北道知事) 二十四日午後七時京城發歸任
◀丸山警務局長은各道警察部長會議에出席中인各道警察部長들을招待하야明二十七日午後七時부터明月館에서晚餐을開한다더라
◀湯淺政務總監夫人及令孃은前同伴하고二十七日午前六時半釜山上陸即時京城에來着한다더라

橫說竪說

▲警察部長會議에與한警務局長의指示中「警察官은常々必須의法令에通曉치못하고又民衆의信賴를受치못하는故로」又「警察官의刑事事件에關하야不少한弊가잇다」고▲警察部長이警察官의刑事事件에關하야는嚴格히措置하라는것이다▲警察官이刑事事件에關하야嚴格하라는것은좀當然하나여러가지의警察官의不法은朝鮮民衆의苦痛을受하는者가多하다▲現今朝鮮의警察官署에서所謂「民衆警察」이라는것만改善되어야人道의罪惡인拷問의風說을聽하는것이다▲吾人은所謂警察制度改新以來國境地方을除한外의警察行政에對하야는多少改善의點을認하기에吝嗇치아니하나犯罪嫌疑者의取調에對하야何等改善이有함을認치못하겟슴이深大한遺憾이라한다此를改善치아니하면他方面에如何한改善을加하든지朝鮮의警察은決斷코文化的이아닐것이다

◇當選漫話 (甲乙) 이러케헐리고야……廣州 尹相賢

今日本紙八面

商況

鮮銀仲發(廿四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手形交換(廿五日)

枚數	[illegible]
金額	一,六五五,五八六

日本金利(廿四日)

	東京	大阪
貸付	[illegible]	[illegible]

外國經濟電報(廿五日發)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illegible]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illegible]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illegible]

大阪株式(廿五日前場)

株名	前引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日清	[illegible]	[illegible]
上取	[illegible]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大新 [illegible]

株式市場

場面不振
大新又軟保勢

二十五日京取市場에各地氣配는安東安取는十八圓八九十錢에保하고大阪大新은七十七圓...

京株賣買價(廿五日)

株名	前場 今週	來週	後場 今週	來週
京取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取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銀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勸銀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換銀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一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土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興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平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郵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預銀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鐵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南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債 止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株賣買高

廿五日의京株市場賣買成立高는...

乙部

甲部 一千六百枚
乙部 二千七百四十枚

綿絲布標準價

京城 三A	一六六,〇〇
九A	一六七,〇〇
大A	一三八,〇〇
金山	一三五,〇〇
金巾	[illegible]
細布	一,二〇
天竺	一八四,〇〇
世界	一三七,五〇
三星	一三七,〇〇
金鷄	一三四,〇〇

株式電報

大阪株式、紐育、大阪 [illegible]

京城商業通信社

仁川期米

仁川期米市場

限月	寄付	大引
六月	二五,三〇	二五,一八〇
七月	二五,四〇	二五,四〇
八月	二五,六〇	二五,六〇
九月	二五,七〇	二五,八〇
十月	二五,七〇	二五,八〇
十一月	二五,八〇	二五,八〇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豐和商店

毛生하는 博士의藥 毛生藥 후미나인 東京藥院 大阪藥院 發賣元

眞正한奇藥 妙 (鮮鐵丸)

本藥으로 特効보는症勢 … 金拾圓也 … 慶和堂藥房

ClibPDF - www.fastio.com

懸賞當選論文

緊急한四條의對策

朝鮮人의經濟的活路

平壤 李景俊 (賞乙)

經濟發達史를詳考하건대 樹上民의粗野한生活로부터 洞穴民의地面生活에 洞穴民의生活로부터 人間生活의三階段을經過하얏나니 三者間에 生活樣式上差異로써 區分한것이라 如斯하게人類의生活狀態가 發達進化함을從하야 生存競爭이生하며 弱肉强食의結果를現出하며 異民族과異民族間에 戰爭이起하며 勞働者와資本主間에軋轢이生하며 畢竟에는奴主問題 貧富問題의解決策으로하야 産業革命 同盟罷業의離附的現象을惹起하얏나니라 特히 歐洲戰亂後의世界的大問題는經濟問題라 是故로世界의經濟的大變遷에依하야 朝鮮經濟界의一大變遷을出來하얏도다 若朝鮮人도世界的生存權을保存하랴하면 世界的生存競爭裡에서 優先할만한自衛策이 必要하나니 其自衛策이何者이뇨 硏究할必要가此에在하니라 是가今日所謂朝鮮人의經濟的活路를思案하는所以니 朝鮮의貧弱한經濟狀態를復興하야 富饒한經濟狀態에至케할도 朝鮮人의經濟的活路를得할에在하니라

朝鮮人의經濟的活路가 何處에在하뇨함에至하야는 各人의觀察方面에依하야 相異할바나 余의信하는바에依하건대 理論보담實行 射幸的意見보담 實際的可能의方面으로부터 朝鮮現在經濟制度에서 朝鮮人의經濟的活路를求코저하노라 然而朝鮮人의經濟的活路는 吾人의生活을土臺로하고 保障하는根本的産業의要素를 增進하고 吾人의生活을保護獎勵하는産業政策을施行케함에在하도다 換言하면 土地生産力의增進 勞働力의增進 資本力의增進 企業力의增進 物産獎勵 保護貿易主義等이是라

第一、土地生産力의增進

朝鮮江山은天然的農業國이라 山林 川澤 沃野 平原이無非貴庫이로되 此를利用生活할技能方法이 不足한것은多言을不要할바라 朝鮮現在의土地生産力을改良、增進하면 倍前의效力을生할수잇나니 卽土地의分量을增加하고 旣存한土地의性狀을改良함으로써 能히産額及品質의增進을促할것이라 更히朝鮮에現在의新作地面積四百三十二萬二千三十五町步外에 開拓及改良에依하야 生産的의面積을擴張하야 産物의數量을增加함이可하며 耕作法의改良에依하야輪換栽培 休作法及大農法과如한耕作方法을施行함으로써其生産力을增加케하며 現在朝鮮米收穫高一千五百萬石에서 肥料의施用及改良에依하야 土地의養分을恢復하고 增進하면 其産出力을增加하며 從來의使用하던農具의改良에依하야 其産出力을增加할뿐아니라 米의品質도優良한效果를得할지며 其他用水機械 灌漑機械와如한것은 皆土地의産出力을增進하는效가大하며 土地의保護 利用及資源에關한施設에依하야 個人의勤勉을促하고 其效力을增加하나니라 又現在의各種米移輸出高가一百九十萬四千八十四石에서七千四百七十九萬二千十一圓의金額을收入하나 朝鮮物産의主要한輸出品으로는朝鮮米에限하얏다하되 過言이아니라 是故로朝鮮人一般思想界에 土地를尊重히生覺하는觀念을注入하야朝鮮人의生存을維持保護함이緊要한것을感하노라

第二、勞働量의增加

「갈마쓰」氏와 如함은 勞働量으로써價値를決定한다함이니 說에依하면 貨物의價値의標準은 社會上必要한勞働量에在하니 勞働量은一定한社會에現存한價値를再生産한上에餘剩餘分의價値를生産하는力의平均勞働時間에依하야判定할것이라 如斯히勞働은神品이아니오 神聖한職務라 鄙然이나 從來의朝鮮人觀念에는勞働은卑賤히生覺하고 浮遊하는習慣이有함으로써朝鮮經濟界의疲弊를乃致하얏스니 自然淘汰의悲運을未免하얏도다 [illegible] 勞働力의增加는 經濟上에及하는技術的效用인데 天然又는人爲에依하나니 人口의增殖이必要하나니 最近實例에依한대 歐米各國에서는年平均千分之十二로 千分之二十가增加하는現狀인데 朝鮮人口의增殖은 [illegible] 文化의進化에依하야 敎育及宗敎의發達은 個人의實質을增加하며 勞働者에對한衛生의設備는 勞働者의危險을豫防하며 [illegible] 勞働力의使用에는一定한程度가有하니 勞働의種類 事業의性質 勞働者의年齡及男女에依하야 勞働時間의多少로써 測定할것이로되 世界通則은一日八時間制度 幼年勞働禁止等이是라 乃至報酬의多寡에 其勞働量을增減하며 分業의發達에依하야 勞働量에多大한效果를生하나니라

第三、資本力增進

朝鮮에在하야 資本家라云하면 固定資本의所有者를稱함이오 流動資本의所有者는稀少하니라 其中에도 資本家는保守的이오 進取力이缺乏하도다 故로現存한資本力을 朝鮮經濟界에有利하게使用하는技術的效果이며 期爲先貯蓄의發達에依하야 하리라 卽貯蓄은消費의節儉이니 適當한消費方法에依하야 消費로부터 節儉된剩餘的産物을更히生産의手段으로하야 資本의數量을增加하는故로 生産上至大한關係가有하니라 詳言하면 貯蓄은個人의獨立及發達의基礎를與하고 吾人에게數倍의時間及智識을與하고 信用을與하고 非惡과奢侈를除去하나니라 資本의利用如何와 資本의運轉如何에依하야 社會는産物을增加하고 個人은利子及利潤의分配를增收함을得하나니라

第四、企業力의增進

企業力의增進은企業의擴張과企業의增加에依하야 此를期得할지라 우리朝鮮의企業은農業만에局限되엿스니 經濟基礎를築固케하랴면 工業商業等企業에推移치아니치못하리라 現存한商工業은家內工業과 仲介的商業에不過하고 大規模의商工企業은僅少하도다 世界的企業競爭上으로見하면 企業의合同이必要하니 同業者間의不利한競爭을避하야 生産 販賣에關한共同規約을設하야 一定한價格을維持하고 業務의安全한組織을期하는바의 協同을謂함이라 最近調査에依컨대 全朝鮮內에株式會社五百四十五社 合資會社二百七十一社 合名會社八十四社 合計九百四十八社中에서 其基礎가堅固하고 資本運用의缺陷이無한企業이 幾個나될가 世界的企業의競爭을克하랴면 同業組合 買占同盟 信託同盟 [illegible] 等에依하야 資本의聯合企業의統一을企圖하리라

第五、物産獎勵

昨秋에國家의經濟緊縮策을斷行함으로써 反撥된朝鮮物産獎勵의思想은 朝鮮人의生存的自覺에急轉直下하야 全朝鮮사람에게通하야 流行하얏도다 卽朝鮮人의心理를 支配한標語로써 朝鮮人의生活의原則이 [illegible] 有限한自給自作에 基礎한 [illegible] 無限한生活을 外國物産으로써供給하나니 [illegible] 地上에恒久的의生存을保存하라면 [illegible] 吾人은外貨排斥主義下[illegible] 能即經濟要素의增進力에依한結果로써 物産獎勵의必要를力說하는바니 兩間相合한後에야 비로소所期의目的地에到達하리라

第六、保護貿易의主義

保護貿易主義는自由貿易主義에對한語인대 國內産業의利益을主로하야 外國品의輸入을制限하는 方法으로는 保護關稅라 云함은 外國産物의輸入을抑制하고 國內市場에는同類物品의價格을騰貴케함으로써 自國의産業을助長함에在하도다 國內生産者로 假令國內市場이 [illegible] 必要한다하되 [illegible] 國內市場은 [illegible] 全部의需要를充分한適合이되리라

無誠意、無意氣

現下社會의弊瘼

元山 金基英 (賞乙)

現下社會의弊瘼 余의拙文淺識으로는此를適實히表現하기에너무도問題가廣汎하고至難하다 우리의弊瘼이엇지一二에止하며 따라서幾多의弊瘼을一々枚擧할는一朝一夕의事가아니며 또한余의菲才能히할바아님을나는안다 그러나나는一種形言키難한衝動으로此文을草할생각이드러우리社會의一少部分이라도表現하얏다하면望外의幸이라하겟다

多數한弊瘼우리의精神生活로나 物質生活로나 或은團體生活로 各々無數弊瘼이잇슬것이다 그러나이모든弊瘼의根本的原因을捕捉하기前에는우리는此問題를解決하기가至難하다 [illegible] 그原因은그리複雜한것은아닌줄생각한다 勿論보는바를따라서는그리簡單치도안켓지만 그러나現下社會의弊瘼中弊瘼이라할것은 「誠意잇고意氣잇는」사람다운사람」이업슴이다 이것이過渡時代의現象이라던지 敎育關係라던지 或은民族的慣性이라던지 그런것은엇지하얏든지 左右間無誠意無意氣가우리現下人의腦裡에 [illegible] 現下社會의大部分의弊瘼이此에因하얏다고 斷定코저한다 猜忌, 爭鬪, 浮華, 虛榮, 懶怠 等한現象이우리社會의內幕이니 그럼으로眞實한意味의「誠意」를發見하기가어렵다 言行의不一致 有始無終 우리의各種事業이 우리의게果然不屈하고成功을必期하는壯烈한意氣가잇는가 意氣沮喪 그것뿐이다 一身의榮達을爲하야 民族과社會를爲하야 誠意奉仕하는志士仁人이몃치나되는가? [illegible] 「意志」의人이不斷의努力을 [illegible] 現下社會를살펴보면實로遼河의景을말함과갓다 徒히大言壯語 悲憤慷慨가무엇에所當하며有益함이잇스랴 實質업는形式 바람에나붓기는갈대와갓튼無節 어데서誠意와意氣를차즐수잇는가?」無誠意, 無意氣, 이것이우리의痼疾이며 現下社會弊瘼의大部分은此에存함을余는切實히늣기며 賢明한讀者의一考를求하려한다 「國步가艱難할에良相을思한다」더가나는現下우리의社會를살펴보고長大息을마지안는同時에偉大한우리의先人 誠忠과意氣로써一生을貫하고 宗社와國家를累卵의危에서救出한李忠武公을追憶한다「憂心輾々夜殘月照弓刀」아!寢食을忘하고國家와宗社를爲하야 苦心慘憺하던그의面影이此詩에躍如치아니한가「삶가나의죽엄을軍中에알리지말나」하고 悲壯한最後를決한 그의게는 죽엄의 슬픔도苦痛도업고다만「誠忠」熱烈한誠忠이잇슬뿐이다누가그의誠忠에울지아니할가

八道가荒廢에歸하고 後事는形勢가日險하야大勢가임의글너젓자만그는落心치안코冲天의意氣로南海一隅에서不息不眠 憂國焦心 大厦將倒에一柱가能支할바아니언만閑山島의夜戰 露梁津의苦鬪를最後로하야敵軍의心膽을寒케하야 그들로撤軍을 [illegible] 하지아니치못하게하얏다 百折不屈 國運을挽回하얏다 [illegible] 「三尺誓天山河動色」아!壯烈한意氣!誠忠의人 意氣의人이것이그의一生이엇다 도리켜現下社會의內幕을보면忠武公을追憶하는마음이더욱懇切하야지며 엇지余一人뿐이리오 「서로밋지못하는苦痛」아!世上에이보담더큰苦痛이또잇스랴! 同胞와同胞사이 兄弟와兄弟사이 서로밋지못한다 아니서로밋을수업다 그럼으로서로疑惑猜忌紛爭分裂이생길뿐이다 이러한現象이모도다우리의無誠意에서胚胎한것이아닌가? 무슨事業 무슨運動 처음에는왜떠들고 熱度가올너가지만은얼마안되야식고만다 밧과말하면持續性이업나意氣가업다 一時의衝動으로 엇더한精力으로써우動止하는어리석고無氣力한우리이다「나폴네온」의所謂「우리의行程을阻止할알프쓰가잇스랴」하고前進不息하는意氣가우리의게는藥에쓰라도업다

權勢에阿附하며黃金에팔니는그럴듯한假志士 그럴듯한思想家 事業家 慈善家모도다「그럴듯」할뿐이다 一人으로能히社會各關係에參與하야「가장自己잘난듯」하고內容으로紛爭이나이르키는이즈음流行하는一部의靑年志士들 君等은能히一人으로多方面의事業에成功할自信이有한가誠意가잇는가?人의能力은그리多方面한것은아니다自己의責任을誠意로써다하고餘暇에다른事業에努力한다하면 ── 眞實로우리는그러한精力家多方面한人物을渴望하노라 그러나엇더한衝動으로나虛榮으로하는無誠意한行動에는贊同키難함을엇지하리오

一時는雨後竹筍과가치이러나든靑年會는별々大部分有名無實한狀態에잇다 土産獎勵 禁酒禁煙이不可한것은아니나다 그러나 [illegible] 持續할意氣가잇는자疑問이다 空然히外人의嘲笑나엇고말면우리커럼無意氣無誠意한民族은업슬것이다

無誠意, 無意氣 이것이現下社會의弊瘼이오우리가眞實한態度로한번反省할點이라고思하노라 無誠意, 無意氣는우리의前途를暗黑케할것이오此에反하야모든일을誠意와意氣로써對하면우리의모든弊瘼이雲散할것이오모든困難한問題를解決할줄로確信하노라

東萊郡鐵馬面 面長 金永佑
東萊郡北面長箭里 朴永祚
東萊郡日光面 面長 鄭潤朝
東萊郡日光面事務所 職員 李圭栢 金常憙 金斗福 鄭寅植 金李花
東萊郡日光面橫溪里 醫生 金達洙
東萊郡日光面文中里 張相河
東萊郡日光面文中里 朴春光
東萊郡日光面伊川里 李奎夏
東萊郡日光面文中里 朴泰淳
東萊郡日光面文中里 黃衛性
東萊郡日光面文東里 朴聖奎
東萊郡日光面伊川里 黃學連
東萊郡日光面 代書業 金成彩
東萊郡日光面伊川里 崔榮鶴
東萊郡日光面伊川里 崔翔得
東萊郡日光面伊川里 伊川青年會 總務 崔珍鉉
東萊郡日光面伊川里 崔翔擧
東萊郡日光面冬栢里 崔鉉鐸
東萊女子青年會
東萊郡龜浦面 金融組合 楊致根 朴培宗
東萊郡龜浦面 龜浦公立普通學校 [illegible]
東萊郡龜浦面華明里 青年會長 安閏根
東萊郡龜浦面龜浦里 張翼遠

東萊郡龜浦面華明里 李鍾翊 李鍾喆
東萊郡龜浦面龜浦里 尹永殷
東萊郡機張面 面長 金柔貴
東萊郡機張面大邊里 漁業組合職員 [illegible]
東萊郡機張面東部里 崔榮鐸
東萊郡機張面大邊里 大邊青年會
東萊郡機張面大邊里 大邊婦人會長 馬順子
東萊郡機張面東部里 李宰震
東萊郡機張面東部里 吳信根
東萊郡機張面松亭里 青年會長 盧戫徹
東萊郡機張面東部里 代書業 張命鳳
東萊郡機張面公普校 訓導 金亥得
東萊郡機張面 李任得
東萊郡長安面 長安青年會長 鄭寅湊
東萊郡長安面德仙里 崔仁鐸
東萊郡長安面林浪里 朴珣和
東萊郡長安面 長安青年會
東萊郡鐵馬面 鐵馬青年會
東萊郡鐵馬面栢青里 金在坤
東萊西門通 金物商 李光雨
東萊西門通 雜貨商 尹炳恒
東萊西門通 五福堂主 林時圭
東萊西門通 싱거-裁縫機械會社東萊分店主 洪性鶴
東萊郡日光面三聖里 醫生 鄭泰壽

東萊西門通 綿布商 金敬鍊
東萊西門通 雜貨商 權世潤
東萊南門通 金根植
東萊城內 佛敎青年會
東萊西門通 綿布商 [illegible] 電話三九番
東萊南門通 蓬萊商店
東萊市場通 米穀商 卞元奎
東萊郡東萊面福泉洞 金泰相
東萊郡東萊面福泉洞 崔秉文
東萊郡東萊面福泉洞 李榮儀
東萊郡東萊面福泉洞 金海興
東萊郡西門面院里 趙尙年
辛泗 辛沁
東萊郡南門外 大東精米所 李元寶
東萊郡東萊面校洞 金聲永
東萊郡南面佔里 青年會長 金化壽
東萊郡南面中里 金斗輝
東萊郡南面中里 金世辰
東萊郡南面 青年親睦會 會長 朴淇龍
東萊郡南面南川里 金子道
株式會社慶南銀行 龜浦支店 支配人 金命九
東萊郡守 金翰植
東萊郡峯山洞 孫德元

東萊郡機張面大邊里 漁業組合長 崔基洪
株式會社 東萊銀行 專務取締役 秋鋼燁
株式會社 東萊銀行 取締役 金炯贊
東萊郡東萊面校洞 崔敬鐸
東萊郡東萊面校洞 韓禹敎
東萊西門通 綿布商 金光商會 電話三七番
東萊西門通 株式會社 東萊銀行
東萊郡機張面大邊里 漁業組合
株式會社 東萊銀行 頭取 吳泰煥
東萊郡東萊面校洞 白仙煥
株式會社 東萊銀行 取締役 崔翔甲
東萊西門通 朴康河商店
東萊郡 [illegible] 許杰
東萊 耆英會
東萊青年會
東萊婦人會
東萊西門通 東萊醫院 院長 許永祚
安岳邑 元植溥
安岳邑 普通學校敎員 張晋道 金昌坤 李象乾 留仁默 李廷植 金碩珍
安岳邑 宋信榮醫院 宋榮璨
安岳邑內 延學斌
安岳邑內 五合商會雜貨部
安岳邑 養成講習所 職員一同
黃海道安岳邑 岡田自働車部
安岳郡安岳面 [illegible] 楊山自働車部

安岳邑內 金庸震
安岳邑內 元炳成
安岳邑內 金應石
安岳邑內 金鳴鑠
安岳邑內 申鳳鉉
安岳邑 [illegible] 德和病院
安岳邑 天道敎區
安岳邑內 五合商會
安岳邑內 邊士彦
安岳邑內 安信商店
安岳邑內 李撤天
安岳邑板八里 崔昌玉
[illegible] 朴懿明
[illegible] 職員一同
[illegible] 高榮杰
[illegible] 林昌煥
海州警察署一同
海州面事務所 副面長 朴昌鎭
海州郡守 下坂重行
黃海道 知事 飯尾藤次郎
全北茁浦 金興三
全北茁浦 金龍均
全北茁浦 茁浦庚申青年會
東亞日報茁浦分局長 辛世源
全北萬頃 金祺中
全北萬頃 金暻中

▽短篇小說△

寫眞 ([illegible])

申必熙

모친은사진을이불싼(褓)밋헤너바렷다 별로감추리라생각하고한일은 아니나 엇지할인지이사진으로하야서 모녀의 두사람은 생한업는 고통에싸지는것가치 생각된다 자긔눈에 띄우는것도 쑴사보기실혓스나 자긔딸의 눈에 띄우게하는것도 역시 실혓다 이사진이 잇는동안에는 어나때든지 고통과 비애를 면할날이 업슬것가치 생각이든다 때때로이사진을 집어업시 불고보다가 고만『주홍』〻〻〻 늣기며가면서우는자긔딸의 꼴은 어머니된 자긔로는 참아눈을 바로쓰고 볼수업섯다

『이애야 너도 딱하지 방낫이가치만하면 엇지하잔말이냐』이갓흔말을 모친은 딸을 대할때마다 경위도한다

자긔 어머니가 무슨말을하든지옥자는 오죽아모소래업시 죽은듯이 잠잠히잇섯다 그의두눈은어나때든지 홍〻이붓허서 붊어잇다 때때로 젓(乳)이붊어서할수업게되면 가슴을버리고 종일에쌋고잇다 이때마다그는『어린아해가잇스면 이가치 아니해도 될터인데……』하면서 둥글〻하고도 두실〻한 자긔어린애를생각한다 이와가치하야 그는 남몰으게 옷깃을적실때가 한두번이 아니엇섯다 그어머니는어나때든지 보고도 못본체한다그런나 가슴이 미여지는듯이 불상한생각이 나서 그역시 두눈에는 눈물이 그렁〻해진다

이째마다 모녀두사람은 서로 말가 업시면서 가만히 도라서〻 눈물을씨서바린다

모친은 딸의말을 위로하고자하야 신파연극이나 활동사진구경가기를권한다

『저는실혀요』그째마다옥자의 하는말이다

『왜! 실혀?』

『엇지할인지 골치가압허서…』

『골치? 방낫집안에만 들어안젓스니 안그러켓니 어서옷닙어라가치가자』

이가치하야 옥자는 가기실인것을억지로 자긔어머니로하여서싱업는 발을떼여가면서 뒤를딸어간다 그는실상 자긔혼자고요하게 솜뭇불에서 잇는것이구경가는것보담나앗다 그의모친은 다만딸의맘을잠시 한째라도 위로코자생각함이엇다 그러나그곳판은 조금도못하엿다 즉모녀간의이별하는것제보가진실자식구박하는것 이갓흔것을 볼때는사랑안솜물고하고홈〻느기여가며서소래치운다 그는고사하고리도엽헤잇는어린아해가비틀〻하는것만보아도 시진에 외로히남겨둔자긔어린애를생각하야운다

『두실〻하고 말넝〻한어린애몸둘다시 한번자긔가 슴에꼭쉬며 안어주고십다 이가치한번하면 그는그자리에서 꼭죽어도 여한이업슬것가치 생각된다

옥자는 이째마다 사진봅버여들고한업시본다

사진은 자긔가 산후의쇠쳑한몸으로 어린애를무릅우에 안치고박이것이다 여름의엿슴으로어린애는벌거벗섯다 마듸마듸 살이쥐서 토실〻하다며구나 두다리를 쭉썻고 고조자지가아래빗살에덥힌것을볼쌔는집어삼키고십도록귀엽다

엇던날 옥자는 또사진을들고 정신업시보고잇다 그런중 이상하게도 지금까지보뎡히 자긔사진이거니생각하고잇든것이자긔사진이아니라 다른녀자이다 그는두귀가한는밤이붊쌋한듯하엿다

그는 이녀자야말로 자긔대신시집에들어온녀자이거니속어린애에게는 계모가되거니하고 생각한것이다 그러타 이녀자이다! 사긔의행복을빼앗아가고 자긔한녀자—남편의 애정도 어린애의사랑도—그는 엇지면 조흘가하다가 몹쓸부르짓는다이(齒)를악물고 두손으로 사진을박〻쇠겨바리려하엿다 순간에 그는 그가 다른녀자가 아니고자긔임을 분명히 깨닷섯다

이갓흔일이 여러번 계속된후로는 옥자는 그후부터이사진보기가 무섭고도두려웟다 그러나 그는 역시한시라도 보지안코는 살어갈수업섯다 그는날마다 이사진을가지고 첨도내며 울기도한다 이와가치하는중에 그는말할수업는 쾌미(快味)를 깨닷는것이엿섯다

이날도 옥자는 사진을보랴고 경대설합을열어보앗다 뎡녕잇스리라 한사진이업다 그는눈이새빨개가지고 허둥지둥 이곳저곳찻는다 볼만한곳은 다보앗스나 사진은업다 이번에는경대설합을 엎허바리고 자긔보앗다 그러나역시 사진은간곳업다『어머니에게무르면 혹알가?』이가치 생각는하엿스나 그는왼일인지 입이 아니떨어진다

『무얼 그러니—응?』하면서 모친은 이모양을보다보다 못하야 뭇는다

『아니야요』그는 종시 이말밧게 아니나왓다

『무엇이야?』

그는 이대답을엇지하면 조흘가하다가

『지갑자커요』하고 무심코 거짓말을한다

『지갑? 내가 앗가 어데서보앗나……』

………그는 공연히 실합만맘엇다 다뎟다하면서 본데를 또보고 또보고한다

『왜—돈쓸일이잇니? 이것이라도 위선 쓰렴』하면서 모친은 자긔가차고잇는 주머니를 쓸으고자한다

『아니야요! 부엇 좀볼것이잇서서……』

이말을듯는 모친은 가슴이선뜻하며지면서『네가사진을 찻고잇는것이구나……』이가치 생각하엿다

『그러나지갑이 아니고 사진이시오』이 가치는 못물엇다 모친은 실로 무릎을치고 가엽섯다

『그래도못차젓니?』

『내가앗가어데서보앗나?』

그의모친은 이가튼 말을하는중에 자긔가 이불밋헤너허둔것을 엇지하면우연한것처럼 가리키줄가 하고애쓴다 그러나그이불밋헤잇다 이와가치는 말이아니나온다

이때 옥자의 어린계집애동생이들어온다

『옥순아네형의지갑보앗니?』하고 모친은 혹시 이와가치하다가 그곳을찻게되면 하는맘으로 공연히뭇는다

『지갑? 웨상이곳에잇지아니하우』하면서 옥자는 차긔동생이 이불밋헤서 집어낸다

『아! 내가정신이업네……』의말은 아모힘업다

『참! 거긔잇구나』하는 모친

옥자는 차긔동생이주는 지갑을바더서 힘업시 노는다 그의눈에는 어나듯 이슬방울이 맷혓나

자긔딸의 얼굴을바라보는 모친은 라단의두굴꺼가 원히인다 동시에 자긔역시 알수업시라도된다

그는『휘—』하면서 길게 한숨짓는다

아모 취미업는옥순이만 체가지감차커낸것을 조와서 자랑하는듯이

『어머니와 형느림닙벌게!』하고 뛰여나간후 다름질하는소래만 커랑하고 요란스럽게들린다 (끗)

▽一幕脚本△

改革 ([illegible])

秦宗爀

등장인물
청년문학가 도상 [illegible]세
김승지(부친) [illegible]세
최씨(모친) [illegible]세
춘월(종) 도상의애인 [illegible]세
금분(종) 십팔세
칠월(종) 십구세
때 사월경

무대 인천시외의 김승지집 도상의서재 정면에는 테불과(의자세개 정면벽좌편에는 유리창 우편벽에는 책장 좌편에는 출입문 막이열니면 칠월이는 테불의먼지를 떨고잇다 조금잇다가 출입문이열니며 금분이가 깔깔우스며 등장)

금분 흥 일잘하는구나 그러면 누구모양으로 잘 보이량으로

칠월 망할기집애 망할 소리만 하지(금분을도라보고웃는다) 그런데 너 앗가 어데갓섯든

금분 나— 저긔서 아조 퍽조흔 구경햇단다

칠월 어데서(걸네와총채를 놋코 의자에안는다)

금분 저후원에서(칠월 안진엽헤의자에안는다)

칠월 무슨구경을햇니 이야기하여보렴

금분 그래이야기하지 저후원에서 춘월이 보와지

칠월 춘월이 그래춘월이가무엇하고잇든?

금분 (의자를닥어안즈며)

칠월 그래서

금분 아조서방님을기다리다봐

칠월 그래서

금분 그래내가그애보고 왜여기잇느냐고무르니(하야조얼골이빨개지며 어물어물하겟지

칠월 그것이자미잇는구경이야 나도저번에서방님하고노는것을 보왓는데

금분 그이번에도 서방님하고 자미잇게 잘놀게될건데 나때문에틀녀지

(도상이가 문을열고 들어온다)

도상 깨끗하게들 치엇니

칠월 네(벌덕이러선다)

금분 네(벌덕이러선다)

도상 (의자에안지며)무슨이야기를 그럿케들 자미잇게해(벙글벙글웃는다)

금분 (벙긋이우스며)아모것도 안애요

(금분과칠월이 우스며 퇴장)

도상 (이러나서책장에서 책을내서 테불에놋코 다시의자에안지며 기지개를켜고 무심히안젓다 춘월이 정반에차를가지고등장)

도상 (빙글〻우스며)누가차가지고오래서

춘월 아이고 서방님도 의레가지고오는것이 낫지 가저왓지요(정반을테불에다 놋는다)

도상 서방님이 무엇이야 아마 서방님이라는것을 안해가 남편보고 불으는뜻으로 불너보것이지 그러면용서하지요 그럿치만 그럿케까지 남편될사람에게존칭할필요야무엇잇소

춘월 아이고 그런말삼 마서요(흰웃도상을치여다본다)이런 부러종은 상전에게 그런존중을쓰는것이지요(고개를숙이며얼골이붉거진다)

도상 그것이무슨말이요 그런말을우리 둘만잇는데 에서도 쓰면 섭섭지안소 그런 칭의 업는 허식의말을왜써야 되겟소 우리는어데까지 용긔잇게나아가야지 갓흔 그계급을 깨트릴터인데 (엄숙한안식으로말한다)

춘월 ………

도상 (벌덕이러서〻 춘월의엽흐로가며) 조금도겁내지마오 마음으로만 나를애인으로 알지말고 것흐로하는 말이라도 나에게는 더욱친하게 하오 참된련애에 계급이 왜 잇겟소(춘월의엽흐로몸을 실니며 그의손을잡는다)

춘월 (가는소래로) 그럿치만 그런놈가 나야지요 그리고 영감이아시면 엇더케요(얼골이붉어진다)

도상 영감께서 아신들 무슨관계잇나

춘월 그러면우리들의바라는것이 다틀려버리게요

도상 (춘월을보면서)아니그럿켓소 나는나의굿은결심에 잇스니가만일그대도나와가튼 굿은마음만 잇다하면 영감께서아모리 반대를 하신대도결혼은자유이닛가

춘월 그럿치만 령감께서 허락지아니시면 엇지하닛가

도상 령감께서 반대를하실것은사실이지 그럿치만은 령감의반대보다 이사회에서는 몃곱상이 더한 비난을할터이지 그럿치만 우리는자긔들의 사랑을위하야 맹렬히 나가지아니하면 이일수 업슬것이요

춘월 ………………

도상 자—오날은 우리의 장래를결정하여야겟소그래서앗가 후원으로맛나자고한것이요지금다시 말할필요는 업거니와 그대가내가무슨일을하라든지 나의하라는대로해야하오

춘월 무슨일이야요

도상 무슨일이든지오 꼭나의 하자는대로 해야되오 그래야 우리의 장래는 행복이 되지오

춘월 그러면하지오 무엇이든지

도상 확실이오(말에힘을드려)

춘월 「네—」

도상 만약지금대답한것을 이따가 이저바리면 나의사랑하는이가 아니오그러고 이배까지 나려온것이 다그짓것되아버릴터이니

춘월 네—엇재든 저는결심햇슴니다

도상 그러면 자—시험을해보겟소 내말을잘듯나안듯나(허리를안으려한다)

춘월 (남자의하는대로 가만히잇다)

도상 자—인제는 아럿소 잠간나가기다리시오

(춘월퇴장 도상은춘월의뒤모양을보다가눈을감고무엇을생각한다 밧게서기침소리가 나자 문이열니며김승지가드러오다 도상이벌덕이러슨다)

김승지 도상아

도상 네

김승지 무엇을하고잇늬 저그 혼인말은알엇지?

도상 무엇입니가

김승지 조판윤집과 혼인청한것말이다

도상 혼인요(압속을낸다) 저는아모래도 혼인안하겟다 그러지 안어도오날은 아버님에게혼인에 대해서말슴을 드리라고하든차올시다

김승지 무엇이야 혼인을아니해 그러면그대로 늙겟단말이냐

도상 아니오저는안해가 잇슴니다

김승지 혼인도안헌 안해가어데잇서(목소리가커진다)

도상 하여간 제맘에맛는안해재목이 잇스니 아버님허락하시겟슴닛가

김승지 조판윤집은 엇더커고 이놈아 새서방놈이 혼인참예하는법이어데잇니 남이알면남붓그럽다

도상 그러면 제의견을허락지안켓다는 말슴이시지오

김승지 물론이지

(최씨등장)

최씨 왜그래요 왜 이애가실래요(고개를돌녀도상을보며)왜그러니 아조신부애가 퍽얌전하고인물잘나고똑〻하다드라

도상 어머님확실이아심닛가

최씨 그럼어적게어멈이 중매하고갓다왓단다

도상 저의외생놀어멈말못고정해오

최씨 그럼엇저니 녯날부터 그럿케하는노릇이페

도상 녯날에는 그래도 지금은 안그럿슴니다

최씨 그러면이대로늙글테냐

도상 아니오 저는 작정해논 안해가잇서요

최씨 그게무슨흉측한소리냐 그래누구집규수란말이냐

도상 우리집에잇는춘월이야요(말에힘을줄엿다)

최씨 (말을하다가 긔가막혀벙〻하고잇다)

김승지 (역시엇전줄 모르고잇다)

최씨 아니 네가벼란간 무슨소리냐 그래 어데가쉬시가업서서 집안에잇는종년하고 혼인을한단말이냐

도상 그럿치안슴니다 왜 그사람은 사람이아닌니가 사람이 사람하고 혼인하는것이 무슨큰일임니가(김승지를보고)아버님오늘은 똑결뎡을 해야겟슴니다 최후로말슴해주서 저는그이와 꼭 혼인하게해주서 허락하실데야요

김승지 잇찬놈 너는 내자식이 아니다(휘이러나서 밧그로나간다)

최씨 엇더케하면조흐냐애마음이돌너라

도상 염려마서오 만일 집에서 허락지아니하시면 나는 춘월이를다리고 이집을 떠나겟슴니다 그리고 다른곳에가서우리의 세계를새로 건설하겟슴니다(결심한빗이얼골에나타난다)

최씨 춘월이를 귀애하더니이런케까지 됨은 몰낫구나(눈물을흘니며 고개를숙인다)

▽感想文△

뜬구름 ([illegible])

平壤 尹善觀

P언니! 오날은日曜日이외다! 응당 겸하하야 只今은아참이외다! 언니되서는맑은바람에불니어오난鐘소래를따러禮拜堂에를가섯슬터이지오? 또한봉동산에어린입새갓흔그비둘을對하겟지요? 순진한良心을가진그비둘과뭇고대답하는자미가果然엇떠하십닛가! 講堂압헤서올니는精誠스러운긔도! 風流에응하야흘녀오는神聖한讚頌이바로저의귀까지들니난듯하외다!

따러서언니의只今맛보시는和平의동산오! 래권에란樂園에참生活이聯想됨니다!

그러나나의안진자리는적막한뷔인방일뿐이외다… 소래를내여도 이야기할이도업고노래를부른다하야도和答할이도업습니다 南山頂上으로부러오는맑은바람은 松林을건너고밋밧을지나서나의 珠簾을흔드러거리며나의이마를 스치고감니다 나는只今홀노안젓스나가장무엇보다도爽快함니다!

南山이마드믄〻한솔폭우에서 몽게몽게—떠오르는저—흰구름 아이고나는참으로조와요쌜니일어나 속〻것옷을다버서바리고 따라가서南山水맑은물에冷水를 움겨서팔신들부은후에松林사이로올니다러서全裸體로서꿈고고흔흰구름을그러안고또거운抱擁을하고십허요! 그눈갓고럴갓흔 솜갓흔부드러운가삼에얼사안기여서달되단키쓰를하고십허요! 언니! 〻〻! 내바로그가삼에뭇쳣슬그때에어느고마운美術家어른이畵幅을펼쳐놋코畵筆을잡아그렷스면! 아그畵幅一面에얼마나価値잇는名畵가되겟서요! 언니! 아마저러한것을自然의美라고하겟지요?! 나는그저自然의美라는것보다 아조大自然의美라고하면조켓서요! 그러나언니! 내가이러고躊躇하는동안에波瀾만흔世上에는또한큰打擊이생젓숩니다 고요히불든맑은바람이強하게부난西北風으로도라숨니다! 나의이마를向하고흔는큰거리든珠簾은北窓으로드리쏘는바람에窓밧그로나아가라고애를씀니다!

大自然의美라든南山上에그고운白雲이漸〻헤여지기를始作함니다 또한그고흔빗갈은어대로가고컴〻신거믄빗숭로因하게변하여집니다! 언니! 只今나의게는 단키쓰뜨거운抱擁도다업서지고 오직一種의恐怖心이나를向하야 威脅할뿐이외다 그구름은그것못차形體가살어지고오직南天이 二色으로검어질뿐이외다

굴세自然은自然이니원망할길이업거니와自然美차나를이다지無視할것이아무엇임닛가!

孤寂의우는나로서暫時의그의慰安을밧으려할째에無心한바람결이나의慰安을째트림니다그려!

아! 언니! 나는다시움니다 南山頂上에一點白雲이참으로이世上을表示함니다

우리의一生이都是저—뜬구름이아니겟숨닛가! 따라서世上에富貴니榮華니하는것이都是저! 구름이야요! 뜨거운抱擁과단키쓰를주든사랑도역시흰구름이지요?—나중에는恐怖와失望을줌뿐이니! 나는다시는浮雲의榮華노래치안켓숨니다 따러서人生이니榮貴이니하는것이며 님의가삼을맛지못하겟숨니다!

처음에깃붐이아니엇섯든들이로록서룸이나잇겟숨닛가! 언니! 나는그만窓을닷지고압흐도솔어졋숨니다……끗

▽當選新詩△

後悔 外一篇 ([illegible])

鏡 昌 蒲

혜여진 그뒤면
한번 더 보아두엇드면
하다가서도
다시 맛나게될써엔
반가우면서도
避하려는 마음이생기여
避한뒤엔
또다시 後悔 後悔

당신의눈계신곳은

님이어 당신이 나다려
당신의눈계시옵신곳을 말하라고 하시오면
나는 당신의귀밋헤
나의입술을대이고 아모의심업시
이러케 소근 거리려하옵니다
「당신이 계옵신곳은 당신이
눈 계시옵신곳은 나의마음입시라고」
당신에게 들니여주렵니다

於奉天 洪鍾翰
奉天新市街 穀物貿易商 張景稷
奉天十間房 朝鮮料理 半月館
奉天西塔 穀物貿易商店 義信昌
於奉天 金洛鎰
於奉天 金永云
奉天新市街 金俊植
於奉天 李英善
奉天西塔 菓子製造業 金鼎河
於奉天 閔泳[illegible]
於奉天 金采烈
奉天中央旅館
於奉天 李興夏
於奉天 田橘圃
開原 洪允成
開原 泰祥洋行
康津南浦 朴明華
康津南浦 金玟采
康津南浦 劉暐炫
康津面牧里 劉戰殷
康津郡東面石橋里 醫生 朴鍾大
康津郡東面金沙里 醫生 金在大
康津康津邑內 金鍾湖
康津南門外 金銀細工所 金洙玉
康津警察署長 永井榮吉
康津邑內 車鍾彩
康津郡守 金永近
城田面松鶴里 李昌煥
城田面秀縣里 青年會

城田面[illegible]
古郡面 職員一同
康津金融組合理事 有馬良一
康津面南城里 料理營業 本田ヨノ
康津邑內 吳和衡
康津邑內 金忠植
康津面牧川 車東珍
康津郡東面 進明義塾職員一同
康津郡東面事務所 職員一同
康津郡東面錦江里 吳基昶
康津邑內 吳東準
淸津驛前 興進組 主任 鄭泰淵 池仁燦 金[illegible] 金[illegible]
淸津明治町 昌設組 主任 韓錫敏 劉哲奎 李錫俊 朴永河
淸津府浦項洞 酒類製造業 宋甲洙
淸津明治町 昌應組 主任 崔春和 徐相祚 池承漢

淸津南門外 醫生 金正民
康津南門外 網巾綿布商 主 梁台亨
康津南門外 綿布商 主 金德一
康津南門外 網巾綿布商 金宇植
康津市場 網巾綿布商 主 雙興利
康津市場 主 志成興
康津市場 主 東興號
康津市場 康津鐵工所
康津邑內 孫熙日
康津面 職員一同
康津邑內 片倉林業部
康津南浦 劉夏辰
淸津東海岸 埠頭組合 兪德守 崔元日 文德守
北鮮淸津 海陸物產委託貿易商 金秉倫 電話三二六番

淸津明治町 日鮮組
淸津明治町 新設埠頭組合
淸津明治町 新設船契
淸津新岩洞 東西日報淸津支局
淸津明治町 廣盛組 主任 河錫集 金昌浩 朴南雲
淸津明治町 興盛組
淸津新岩洞 協同組
淸津新岩洞 登負組合
北鮮淸津港 海陸物產貿易商 黃鍾國
淸津府新岩洞 大昌醸造所
淸津 李圭錫
淸津府新岩洞 大東醸造所
北鮮淸津 淸華醫院 金殷善
群山府濱田町 米穀海産物委託貿易業 田範植
群山府 藝妓組合 朴錦仙

群山府江戶町 李世燦
車明植
漢湖藝妓組合
群山 精米籾摺組合
群山府 邊光鎬
群山府榮町 金永奎
群山府江戶町 蔡奎熙
群山大井洞 劉泰亨
群山府榮町 同友社
群山府榮町 劉光成
群山 勞働共濟會
群山府江戶町 東一商會
群山府本町 南信商會 主 文明眞
群山府榮町 九一商店 主 李仁九
群山府藏財洞 金允中
群山府藏財洞 廣信社

群山府 東山月
群山府大井洞 金炳基
朔州 李鎭夏
朔州郡南門外 崔允明
朔州 李範球
朔州 朱碩熙
朔州 朱炯龍
朔州 金達恒
朔州 李錫默
朔州面事務所 職員一同
朔州天道敎區 敎區一同
朔州郡南門外 孫正淑
朔州 朴文[illegible]
朔州郡南門外 韓德浩
朔州郡南門外 金龍星
朔州郡南門外 金孝信
朔州郡南門外 張龍福
朔州郡南門外 金大濬
朔州 金永燦
朔州 李奉賢
朔州郡南門內 崔昌龍

ClibPDF - www.fastio.com

家庭으로부터鄕土에

◆家庭改良◆ 虛禮를減廢하라

裵相哲

우리가 현금 무엇을 개량치 안흘 것이 잇스리오마는 가뎡개량에 대하여는 더욱더 힘써야 하겟다 첫재 아비의 자식압헤와 남편의 안해 권리가 너무 심한 까닭에 친애는 멀어지고 외긔(畏忌)만 생기여 화식의 화순한 듯하나 내심은 사긔(詐欺)와 불평이 함상 착복한다 가족은 완전한 듯하나 속에 병들미 레사이나 이것을 곳처야 하겟다

그리고 또 허례를 너무 중히 녁이는 폐단으로 금전을 다허히 소비함이다 대략 말하자면 부모를 생존시에 봉양함보다 사후의 장례와 제사를 더 중히 함이오 남혼녀가에 힘에 과한 납폐와 연회를 할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를 개량한 후에는 자녀교육의 개량에 힘써야 하겟다 흔히 자녀를 귀하다고 사여예 지나치 가라치지 안는 것이나 이와 반대로 너무 가라치는 것은 크게 불가하다 십세이 [illegible] 되니 반듯이 시세에 뎍당한 것을 가라치야 할 것이다 지금에 나서 지금에 뎍당한 것을 모르고 태고련 짚세 적에 뎍당한 일만 알게 하면 그는 현대사람이 아니오 넷날사람이니 도저히 이세상에 소용될 사람이라 할 수 업다 이 점에 주의하지 아니치 못할 일이다

또 하나 쉽고도 어려운 것이 잇스니 머리의 개량과 의복의 개량이다 머리는 깍는 것이 조흘듯하다 조흔 것이 아니라 꼭 깍거야 할 것이다 위생으로 보더라도 꼭 깍거야 되겟다 그것만 아니라 면 의복의 개량은 좀 쉬울듯하다 우리 입는 흰옷은 너무 검기가 쉬워 부인들의 시간은 의복 만들기에 다 보내게 된다 그리고 혼인도 개량하자 사당만 저 겨른 가리자 안코 문벌과 재산만 보는 고로 부부간은 고만 거로 불만히 생긴다 이 불만은 맛참내 리혼의 비극을 일으키는 원인을 만든다 녀자교육에 첫재 유례를 중히 할 것이다 녀자의게는 이것을 경히 녁이는 고로 신데가 건강치 못하게 되여 그 신데가 건강치 못함으로 출산한 자식들 낫치 못한다 누구나다 신련대 귀질이 불충분하고 큰 사업을 할에 용이 할이 업슬 것이다

食事는如斯하게

吳政完

우리의 가뎡생활에는 개량할 점이 만이 잇습니다 그러나 백사에 네々치 못할 일이 아니라 금전상관에도 곤난한 형편과 [illegible]계로 개량치 못할 점이 잇스나 그중에 나의 평소에 감촉된 바로 곳 [illegible] 이들지 아니하고서라도 누구나 능히 개량할 만한 두어가지를 긔록코저 합니다

(一) 밥을 먹을 때에 외상이나 겸상으로 각々 먹는 번잡한 것을 개량합시다 이것은 어데로 보던지 불편 불리한 점이 니 우리도 일로부터는 외국인과 가치 식상 하나에 일가족이 모혀서 자미잇게 먹게로 할 것이오 이와 가치 하면 비용이 얼마쯤 경감케 되고 남보기에도 일가의 화목이 낫타날 것이며 음식도 자연 맛이 잇슬 것이옵시다 개량함에는 별로 어려운 필요도 업시다 만 몃가지의 귀구만 변경하면 만족히 될 수 잇다고 생각하오

◆우리어머니◆ 勤儉,平和

幸福生

우리 어머니는 지금 나히 쉰한살이 신데 키도 적고 몸도 좀 약하시나 대개 강건하십니다

사랑 만코 눈물 만코며 부지런하신 어른이오 넷어른치고는 가장 만히 지금 세상의 형편을 잘 짐작하시는 이입니다

두 아들과 외딸이며 삼지어며느리까지 다 학교에 내여보내시고 몸소 쉬나를 지으시며 집안의 모든 일을 보살피십니다 봄과 녀름에 호미를 들고 밧헤도 나가시며 가을에는 몸소 목화를 따시고 한겨울 한방에는 물래질로 듯도록 보내십니다

어린것들이 서로 싸호거나 실수를 하면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흘니시며 타이르심으로 잘못을 찻하게 됩니다 딸과 며느리 사이 치사랑 하심으로 딸과 며느리도 친동생이나 다름업시 다정하게 지냅니다

온집안에 조고마한 불평도 업슴이 우리 어머니의 덕이오 이웃들과 친척분이 집게 지남도 다 우리 어머님의 덕입니다

넘우 자랑인듯 십으나 이 얼마나 한 행복인 것가 커는 우리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와 뎍을 몽매간에도 니즐 수 업스며 늘 깃븜을 못익여 춤을 춤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휫々々 쇠인머리와 주름살 만흔 얼굴이며 피들 두드러진 손등을 볼때에 이것만은 제의게 가삼 막히는 슬픔을 줍니다

母의愛는萬能

李在明

수년전에 된 일입니다 별세계라고 할수밧게 업는 곳에 가서 나는 얼마동안 지냇다 그곳 생활을 하게 된지 사오개월만에 소위 판결이라는 것을 밧아 그 넘간에는 모입겨될 별세계 사람이 될터이라 공연히 원편무넘지웃이 벗게 케되며 몸이 실혼 압하 의로온 중에 더욱이 고통을 못견데나이다

이여에 간스는 나를 불너 면회실노 다리고 감으로 나는 누가 오셧나 생각하며 몸이 압흔것을 나라내지 안을 나고 생각하야 손걸음 추엇슴니다

면회오신이는 나의 어머님이섯나 얼굴밧게 볼 수 업는 조고만 구멍으로 우리모자는 상대하게 되엿는데 어머니는 눈물 시는 모양으로 『네 손이 왜 그러케 되엿니』하고 무르섯슴니다 그래서 나는 또한 엇더케 보섯는지 하여 놀내엿슴니다 다시 어머님은 『공연히 그러냐 화긔인가 보구나』하시면서 사랑의 시선은 더욱 나의 전신을 살피고 계하섯슴니다 그러나 나는 엇더케 말할 줄을 몰나 머뭇거리다가 어머니께서는 다시금 손이 압흐겟다고 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위로코커 수처하신 얼굴에 우슴을 먹음으시고 면회 맛치 되신 사랑의 말삼을 하신후에 시간이 되여 그만 집으로 도라가섯슴니다

한시쯤 지나 커녀에가 되엿는대 커녁밥에는 약이 드려왓다 이 약은 별다른 약이 아니고 도야지 족을 넨이다 나는 어머님을 생각이며 감사하며 엿스며 그러고 그 밤은 평안이 잣슴니다

또한 아참에는 완젼히 나앗슴니다 그것이 약인지 내 어머니의 사랑이 약인지 의심이 업지 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라고 밋슴니다 어머님의 사랑나 엇더타고 말할 수 업지만은 이런 이상한 사랑은 참말 엇더라 헤아릴 수도 업다고 생각합니다

◆鄕土자랑◆ 世界的珍寶 (江西)

朱基柱

평양서 평남선을 타고 가다가 기양뎡거당에서 나려서 서편으로 약 이리 음가면 강서가 보인다 뒤에는 청긔잇고 놉흔 무학산이 잇고 서편에는 옥로봉 동편에는 봉황대 병풍갓흔 산들이 죽 둘너잇다 산밋헤 바로 집들이 즐비하여잇다 압헤는 욱터진 넓은 광야의 룡토 [illegible] 지류가 사시당헌 흘너나린다

내가 첫재로 자랑하는 것은 약수(藥水)이다 친문기사들이 와서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이 잇서 특별히 병자의게 특효가 되며 더욱에는 무쌍의 련면음료수라고 하엿다 그것도 소량의 약수가 나옴이 아니고 우물과 가치 얼마든지 흠에는 한다하는 사이다나 씨토론 갓흔 것이 쓸데업시 되며 누구던지 도라도 아니볼 것이다

그다음에는 조선에 뎨일인 강서 참외이다 크고도 단 참외요 설고도 참외 와 참외이다 그것은 농업교과서에도 밀등종으로 쓰여잇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내가 말하지 안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강서에 유명한 아니 권조선에 유명한 우리의 자랑거리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엿스면 실은 박물관에 잇는 것만으로드 만족할 것이다 『채무덤』이라고 하는 고구려시대의 왕릉이라든니 고해서 일흠을 써도 업는 무덤 셋이 잇다 곤무덤이라고 한다 안에는 말할 수도 업는 큰 돌을 가서비로 방정히 게 방안처럼 만들엇는데 한편쪽이라도 잇지 아니한 돌들이다 벽에는 벽화가 그려잇다 그것은 참말로 이상하다고 할수밧게 업다 이천여년이나 된 오늘까지도 조곰도 변치 안코 오히려 그림의 석채가 새로워 간다 이러한 크고도 유명한 또는 진귀한 것을 우리가 가첫스니 이것이 강조선을 통하야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강서본목이라든지 무엇々々이 만치마는 그것은 그만 둔다 마즈막으로 강서의 인물을 말하면 조선근대사에 오를만한 대청재에 국자를 만히 산출하엿고 또 최근에 니르러서 외국류학생만키는 강서입것이다

려사상으로 한가지 더 말할 것은 어느 시대리에 님군이 피란하러가시다가 강서 휘산에 안즈서 우섯다는 곳이 잇다고 자리는 아직까지 아모풀 하나도 나지 만는 이상한 곳이다 일홍하야 왕명산(王鳴山)이라고 한다 이런 여러가지 자랑할 것이 만흔 우리의 강서다

理想的樂土 (穩城)

金甲

사람이 누구나 커의 고향은 조타 하지만은 참으로 우리 온성(穩城)은 니즈랴야 니즐 수 업고 자랑치 아니하랴야 아니할 수 업슴니다

위선 위치(位置)로 보더래도 두만강(豆滿江) 연안에 잇서서 남으로 종성(鍾城)과 큰 도시와 련겹하고 동으로 중국의 큰 도시 훈춘(琿春)과 상거하기 삼십리에 불과하며 북으로는 강을 격하야 『령수권』의 조흔 들과 접하고 서으로는 북간도의 국자가(局子街) 룡정시(龍井市)가 불과 칠십리에 잇서서 내외의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산은 아름답고 들은 넓엇는데 강변의 옥토는 엄마나 기름지든지 이디방 농민은 거름을 내아지 안코도 훌륭히 농사를 지을 수 잇고 숩이 만하서 시초의 걱정은 하지 업습니다 『압소재』의 석수골(石炭坑)은 장래 공업상의 큰 미권이며 『긴사등기』벌 분새관은 흔등한 목장(牧場)이올시다 일홍흡흔 북포(北布)는 해마다 수만필식 수출되며 흔춘, 회녕 등 큰 도시로 콩과 좁쌀은 엄마나 만흔지 린읍간에서는 『온성창고』라는 별명까지 듯습니다

물밝고 산고흐니 간데족々 조흔 경개가 만컷마는 그중에도 개원사(開院寺) 령월사(英月寺)의 삼작돌린 터진압헤 바위사이로 사시당던 쉬넘업시 흘너가는 시내물소리는 유산객의 도라감을 닛게 하고 청々으로 고요하게 여긔커긔 고요히 쌔어 나붕오리는 시속사람의 머리를 식힘만 합니다

노리터로 유명한 남산(南山)에 올나보면 청녀의 진경이 손바닥에 노혼 듯이 보이고 리태조(李太祖)께서 리지란(李之蘭)을 맛나 룡소를은 옥소레는 우흐로 하늘을 만질 듯하고 아래로 큰강을 건너뛸 듯합니다 이밧게 연두봉에서 하백녀(河伯女)가 살녀하든 터이라던지 금항아리 옥그릇이 지금도 전하여 온다는 녯일을 그립게 하는 곳들과 황파(黃波)의 선바위는 모도다 온성의 자랑날만한 곳이외다

여러분은 우리 온성에 한번 와보시기를 바람니다 참으로 참고하실 것도 만코 보암직한 것도 만코 연구할 재료도 만히 잇습니다 오백(吳伯)가튼 장수라는지 권백록(余伯祿)가튼 명웅이라던지 박괴만(朴紀萬)가튼 문장이 이땅에 나신 것이 엇지 우연한 일이며 리태조의 휴양과 마보며(馬保大)의 계획이 모다 이곳에 잇섯슴니 또한 당연한 일이올시다 두만강에 낙지를 드리고 회원에 노래부름도 이땅이오 시내몸에 몸을 씻고 송림간에 고요히 안잣슴도 이땅이오 사자가져 고함치고 북만주와 『시베리아』넓은 벌판에 대할보로 뛰어감도 이땅이라 함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대하야 그다지 번화치도 안코 그다지 궁벽지도 아니한 련부의 락원—리상데하토인 우리 온성을 간단히 나마이로 쇼개합니다

◆地方傳說◆ 鳴巖 (晋州)

洪鍾哲

진주군 명석면(鳴石面)에는 크나큰 돌 두개가 자웅을 지여서 사랑의 형데를 가지고 동구에 섯습니다 진주군에서 삼십리 거리되는 북면이오 산청군의 동쪽이며 집현산이라 하는 큰산이 험준하게 눌어선 중간에 섯서요 비권 실라(新羅)에 진주를 진양이라고 할 시절에 청쳡을 새로 차을새 집흔 산중에서 큰돌 두개가 자웅을 지여 궁글々々 나려와서 구복동(求福洞) 동구에 좌정하야 그밤을 지범새 그날밤에 구복동 바로인의 몽중에 엇더한 백수로인이 현몽을 하되 『네가 래일 아츰에 보면 너의 진압넌릇 큰 커에 큰돌 두개가 앗스리라 이 돌은 집현산 산신의 반드신 주초돌이라 방금 진양성을 쌧는다 하늘 듯고 가는 길이나 병빙에는 수고를 맛기지 말고 삼십리로 청귀를 인도하야 주면 장래에 큰 행복을 바드리라』하기에 눈뜨새 나라는 듯고 보니 과연 큰돌 두개가 것스되 로승이 장삼을 입고 집행이를 짚흔 모양으로 주커히 섯거늘 이로인은 고이히 생각하야 즉시 진양을으로 강서 보니 변안간에 청쳡을 경영하야 옹장하게 역사를 하되 거의 준공하구로부터 오리가량이나 나려왓거늘 이로인이 돌을 보고 하는 말이 『돌아 네가 진양청쳡에 가는가 보다마는 내가 어케 진양으로 다녀오는 길이다 발서 청쳡이 다 준공이 되엿는데 산중 삼십리를 허행알터이나 무엇하라 가는가』하고 자긔집으로 도라왓더니 그날밤 삽경에 이돌 자웅이 목흡노와 울고 도로혀 박로인의 진압 논뚝에 와서 섯는 고로 명석면이란 명칭을 하얏슴니다 유래로 경험사실을 보고 듯건대 귀이함이 만아요 이 돌이 한번 울면 시국에 병난의 그미가 동서에 흉々하니다 우리의 오십인생의 경험만 하더라도 갑오년에 두번 울어 동학난이 생기고 머청일년 청일에 세번 울어 만세소요가 생기엿지요 또는 해마다 륙케라고 하야 케사를 지내되 역을 정결하게 지여가지고 그돌압헤 게사를 하면 중재 풍재 수재가 그곳에 소멸하야 삼재가 불입한다니다 근래 유행하는 악질이라도 구복동에는 침입지 안는 고로 수십리외의 수경군들이 춘추양절에 련락부절합니다

곤당골 (京城)

具然祖

선조때 홍순언이 명나라에 역관으로 가서 북경을 구경하다가 한곳 청루에 가니 그중에 뎨일 상등청루라 썻거늘 노주인더러 커곳은 엇더한 곳인고 한즉 대답하되 그곳은 일등미인이 잇는데 재물이 만치 못하면 보지 못한다고 조롱처럼 말하엿다

홍씨가 말하되 나는 비록 조선사람이나 한번 구경하겟다 하니 주인이 인도하는지라 그곳으로 드러가매 안으로서 일위미인이 시녀의 인도로 쉬々히 나오는지라 자세히 본즉 자식에 부덕이 나타나며 용모에 수태가 잇서 결코 천기의 행식이 아닌 고로 고이히 너기여 청루에 두신한 리유를 무럿더라

그는 첨음양구에 대답하되 『나는 왕각로의 녀식으로서 부친이 강남에 구양간지 오래되 재물이 업서 속쥔을 밧치지 못함으로 몸을 팔아 속권을 구하나라』 하고는 눈물이 옷깃을 퍼사더라

홍씨가 그경々을 불상히 녀이여 자긔의 가진 재물을 몰수히 주면서 속히 부친을 구하라 하니 그녀자는 못내 칭사하면서 홍씨의 성명을 물엇스나 홍씨는 다만 『조선사람 홍씨로라』하고 돌어왓더라

그뒤 임진란에 명나라로 청병할새 홍씨가 도역관이 되야 명나라에 가 구원병을 청하얏스나 허락하시아니하는지라 하릴업서 도로 오려하는 차에 한곳을 지난즉 조선사람의 이야기를 듯기를 원한다고 서부칫너라

『홍씨—그집을 차커간즉 왕각로의 집이라 주인 각로를 데하야 고금의 이야기를 하다가 련권에 축원 왓슴네 엇던 청루에 가서 혀도히 재물 벌인 이야기를 한즉 각로가 홍연경희함을 이기지 못하면서 내실로 가더니 얼마후에 한녀자를 데리고 나왓다

그녀 홍씨를 향하야 커녀자를 참농안서 보다가 녀자가 목디 아지 못하는가 한즉 두사람이 한동곡하면서 나의 은인을 인케야 맛낫도다 하고 련권 청루에서 홍씨의 구항을 입어 부친을 속한 과 병부상서 석성에게 출가한 뒤 일변 깃거하야 청병온 빔을 말한즉 그때 석성의 힘으로 구원병을 엇드지라 조선으로 향할새 석성의 부인이 례단 수백필을 수며 사은하되 이 비단은 내손으로 잔 것이니 야소하나마 밧기를 원한다 하거늘 마지못하야 가지고 와서 본즉 비단마다 보은단이라 석엿는지라 이말이 퍼지되야 그 홍씨 사는 동리를 보은단골이라 하더니 그후 와전이 되야 곤당골이 되니라

◆當選新詩◆

가을 外一篇 (賞乙)

熊川 任炳奎

푸른하늘 지나가는새
밝은가온대로 맑은가온대로
지나가는새
내마음

마음

울나고생각하고
우는얼골을自己에게뵈고자
거울을向하야
그만웃고말앗다
아모意味도업시
거울의거즛함 그럿치만
自己의얼굴거즛함……

◆當選童謠◆

누나 (賞乙)

東京 趙公

누나야어듸가요
왓다가어듸가요
또가마타고求景가오
언제와지다갓나오
나도안다리고가는
求景이언제나왓나요
七夕날이來日인데두
누나야어데가오
시집이리던데를또가요
나버리고갈제는펴도맛쳣소
누나는펴도시집을조와하오
누나야 어듸가요
왓다가 어듸가요

나뷔 (賞乙)

옹진 임병升

알금삼삼고흔독에
술을하여금컹수라
팔모와근류지잔에
나뷔안커잔질하네
그술먹은취정엣헤
노래한쌍지어보세
미나리리시평곳은
구름에도의심이요
날과가흔애기쏫은
책상에도피여나네

撫順高砂町一丁目 日新商會

撫順新町七 淺倉 [illegible]

撫順新支那町 義同商會

撫順新支那町 協泰公司

价川郡外西面 軍隅公立普通學校 校長 訓導 訓導 [illegible]

价川警察署 職員一同

价川郡外西面事務所 面長 書記 [illegible]

平安南道 价川金融組合 振替京城七五六二番

价川郡守 朴聖奎

价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軍隅里郵便局 職員一同

价川郡外西面 軍隅金融組合 組合長 理事 [illegible]

价川驛前 共同組運送部 主任 [illegible] 振替口座京城一二一三九番

价川郡廳 白旻煥

价川郡廳 財務課長 山內敬三郎

价川郵便所長 福田博吉

价川郡外西面軍隅里 金[illegible]

价川驛前 永昌自轉車店 朱[illegible]南三

价川郡廳 吉昇[illegible]

价川郡价川面 面長 金淳玉

价川郡廳 庶務課長 上野初三

平原郡西海面 光西學校職員一同

平原郡西海面 西興學校

西興學校 教員 金[illegible] 白[illegible] 李[illegible] 安利[illegible]

公州青年修養會

公州旭町一五二 辯護士 柳靖鉉

公州邑內 銀行員 權石臣

公州本町五二 銀行員 朴容益

公州大和町一七五 高普校教諭 安寅植

公州郡公州面山城町一八三 忠南勸業株式會社

公州旭町一七五 銀行員 金喆炫

忠南公州本町南鮮倉社前 陶磁器洋燈販賣 和洋家具製造商 具然學

公州邑內 金完[illegible]

公州本町 パン商 金顯哲

公州本町 改良洋靴店主 金聖[illegible]

公州本町一二八 經濟洋襪見習所主 兪暇在

公州本町 煙草商 趙東和

公州大和町四二 面協議員 朴斗杓

忠南大本山公州郡 麻谷寺 主持 俞寅明 監務 李性海 監事 李秋月 法務 韓榮國

論山郡陽村面陽村里 朴永彩

論山郡陽村面陽村里 林陽勞働共濟會

論山郡論山面堂岩里 裵[illegible]一

論山郡論山面旭町 李[illegible]

論山郡論山面旭町 金晚植

論山郡論山面本町 金[illegible]

論山郡論山面榮町 金仁[illegible]

論山郡廳 金容[illegible]

論山郡廳 宋榮甲

論山郡光石面新堂里 尹希重

論山郡魯城面 鄭寅吉

江景面中町 代書業 趙東輔

江景面本町 綢緞布木商 主 張南淳

江景中町 漢城洋靴店 主 金容璨

江景面中町 名種時計眼鏡附屬販賣修繕 天賞堂時計鋪

江景西町 洋服雨具及學生帽製造商 主 金昌植 同昌洋服店

江景本町 學生帽子製造販賣 洋服附屬品其他學生用品 友益商會

江景中町 大興山製絲 主 朴興圭

江景中町 金永洋靴店 主 金道永

江景中町 金昆洋服店 主 車仁成

江景面中町 湖南京城旅館 主 申彥常

木浦私立希望幼稚園

木浦府竹洞 李春培

木浦府 朴正允

木浦 徐炳寅

木浦 金炳奎商店

木浦 田東潤商店

務安郡一老面 金洛均

木浦府竹洞 大同 金府[illegible]

木浦青年會

東亞日報社 木浦支局

木浦北橋洞 貿易商 車南鎭

木浦竹洞 大同商會 金商億

木浦府常盤町 廣信商會

務安郡長山面 貿易商 張東植

務安郡 張鎭邦

木浦府大正町二丁目 新興洋靴店 主 吳希圭

木浦府南橋洞 朝鮮婦人商會

木浦府 裵和玉

木浦府 物產問屋組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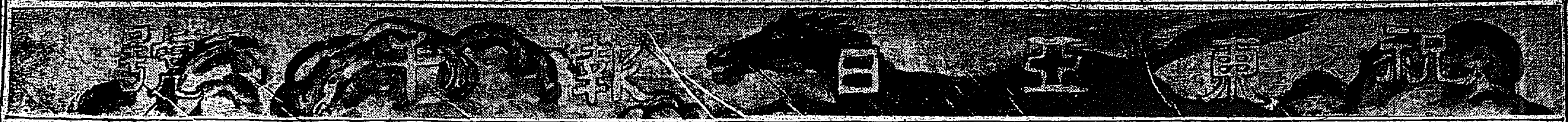
木浦府 文允淑

務安郡 閔龍植

務安郡 高玟喆

木浦府大正町 任賢宰

木浦府竹洞一四番地 史演奎



平壤府鐘路里壹三六番地 平壤府公設兒童相談所 平壤府公設診療所 府醫 盧鳳奎 電話八八六番

中和郡邑內 下賣捌所 散藥局 鄭基泳

中和郡邑內 木物商 文明宣

中和郡邑內 宋晙燮

中和郡邑內 雜貨洋服商 常信商店 吳信鎬

中和郡邑內 梨花果園 趙永燮

中和郡邑內 洋品雜貨商 全相燾 商店

中和郡草峴里 養蜂園 主 金亨根

中和郡邑內 ㊂運送部 主任 金相殷

中和郡邑內 痲疹大家方 東華醫院 李仁彦

中和郡邑內 天道敎中和郡宗理院

東亞日報中和分局長 金□致

南浦鐵道 貨物取扱 米穀其他委託販賣 鮮人同友會加盟店 京義線中和驛前 ㊀信興運送店 主任 金斗□ 主務 邊元鎬

平壤南門通二丁目 英米屋洋服店 電話壹壹四壹番

平壤鐘路 耶蘇敎書院 電話九八六番

平壤鐘路 基督敎青年會 電話壹壹○六番

平壤府敎會里八二 辯護士 吳崇殷 電話六二九番

平壤府竹典里 平安貿易株式會社 電話八五二番

平壤府內 朝鮮物產製造貿易及委託業 協興社 振替京城壹壹二五九番

平壤西門通 第二東洋精米所 長電話八○三番

平壤南門通二丁目 大同江잉크製造所 永新洋行 電話壹二四三番

平壤府敎會里七六 辯護士 辯理士 韓根祖

平壤府新倉里五七 各種帽子 洋襪靴 製造及大賣物 泰永商會

平壤府黃金町 平安印刷所 主任 □志淳

平壤府新倉里二十三番地 朝鮮料理 長春舘 電話九五一番

平壤府館後里 順天醫院 康秉鈺 電話四六四番

平壤府城店里貳貳番地 平壤穀物斗量組合 電話九五四番

宣川 壽山醫院 公醫 李昌鎬

宣川 宣川齒術院 玉文振

宣川本町 玉文成

宣川 仁濟病院 醫師 洪致業

宣川 美東病院 金學賢

宣川 美東病院 吳震泰

宣川本町 堂井 菓子司 洪福萬天

天道敎區宣川郡敎區 李君吾

宣川 宣川韓暎寫眞館 全基泰 朴贊斌 金福昌

朝鮮共濟組合 宣川區組合 主任 金尚謙 元常林

宣川郡邑內 金樂賢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朝鮮支店 禹弘命

義州南門外 廣濟醫院 醫師 李義用

義州南門外 救世醫院 醫師 張昌植

義州東部洞 楨山醫院 醫師 金志楨

義州西部洞 龍灣醫院 張鶴寅

義州南門內 朝鮮支那和洋料理 漢陽舘

義州城內 徐丙翼

義州南門外 新興洋服店 主 洪尙河

義州南門外 澤美自働車部 澤美洋靴店 主任 金弘□ 電話三十一番

義州 藝妓券番

義州南門外 韓興自轉車店 自轉車及附屬品販賣 主 李□祥

義州城內 東光商店 主 金志梓

義州東部洞 海東舘 嚴字□

義州物產獎勵會 會長 李昌洙

義州城內 金斗衡

義州西部洞 金喆□

義州禁酒會 會長 李民濟

義州券番 韓小淡

義州券番 許江仙

義州券番 金桂紅

義州券番 鄭玉姬

義州券番 金碧桃

義州券番 金銀仙 金河玉

新義州眞砂町 海陸運送 米穀物品貿易委託及委託賣買業 ㊅丸山商會 ㊅丸山運送部 白洪濬 白洪□ 電話六二番 電略コウ又ヲ

義州郡光城面 姜利璜 車濟煥 朴聖基 李命世 金孝明 劉重瑞 金正元

新義州老松町五番地 辯護士 崔昌朝

新義州老松町 穀物貿易及委託賣買業 保產商會 電話二一五番

義州郡古津面 面長 書記 張益河 金清源 張東爽 白成魯 崔濬哲 金承坤 張鳳瑞

新義州老松町 張仁卿

新義州府老松町 平北道廳御指定 漢城旅館 電話三一八番

新義州府榮町四丁目 白永禧

新義州府 永興商會 電話六一八番

新義州榮町 新興商會 電話一○八

新義州府榮町四丁目 尹斗炳

新義州府 平北商會 電話四三

新義州眞砂町 東華醫院 院長 金英哉 電話三一一番

新義州府眞砂町 李泰永

新義州府老松町 青山病院 醫師 崔允鼎 金鳳文 電話二六七

新義州府 商品仲買組合 電話三三九

新義州若竹町 張俊□

新義州永淵局 宋啓夏

平北義州南門外 西鮮印刷株式會社 活版石版印刷 諸般帳簿 和洋紙類 和洋文房具 學校用品 電話九番(電略セイセン) 振替口座京城五九六八番

天道敎義州宗理院 天道敎義州青年會

大邱金曜團

大邱府横町九八番地 馬錫龍

大邱西城町一丁目 李相岳

大邱南山町一四二番地 盧右容

大邱府京町一二四○番地 東亞商務株式會社 慶北支社

大邱府京町一二四○番地 哀慶相助 慶北支組合

大邱錦町二二一八番地 高麗窯業株式會社

慶北道社會課長 俞萬兼

慶尙北道社會課 高畠爲次郎

大邱明治町 三光醫院 金□敬

大邱南城町七二 徐丙敏

大邱東城町三丁目 鄭志源

大邱府曹天敎正敎部長 閔泳晟

大邱府京町 徐丙元

大邱壽町一七 裴文煥

大邱南城町 東洋醫院 白南鎬

大邱南城町 慶北書院 白信七

大邱東城町 彰美軒 鄭裕淵

達城郡達西面院垈洞 崔栢

大邱府南城町八三番地 辯護士 全炳夏

大邱府明治町二의六八番地 金燦洙

大邱府下西町三四番地 鄭海鵬

大邱府西千代田町 鄭龍基

達城郡壽城面上洞 秦喜葵

大邱府南町 徐喆圭

大邱府明治町二丁目 徐丙朝

大邱府市場北通 徐相日

大邱府京町一丁目 好生堂病院 金鍾□

大邱府京町一丁目 救世醫院 李在榮

大邱掘池事務所 禹東狩

大邱東千代田町 李相麟

達城郡城北面山格洞 文永福

達城郡城北面山格洞 金英澤

大邱府本町二丁目 布木組合

大邱北內町 安潤五

大邱喬南學院 鄭□默

大邱三笠町五番地 徐炳柱

大邱南城町 徐昌圭

海州東榮町 李炳星

海州 隆興商店 金鶴俊

海州 宗南自轉車商店 長電話一五七

海州 海州醫院 鄭宗洙

海州 ㊕西業運送部 電話一一三

海州東榮町 金相敦

海州東榮町 啓明社 活版印刷所

海州東榮町 崔永敦

海州東榮町 李承瓚

海州 翁首陽運送部 電話一一九

海州南本町

海州南本町 雜貨商 姜萬泳

海州宗路 雜貨商 宋源燁 長電話一九

海州宗路 金廷淳

海州 和洋雜貨商 金世榮 電話一三○

海州 宗路便利靴店 吳在明

海州 首陽便利靴店 金□□

海州南旭町 宋炳萬

海州東榮町 李鍾喆

海州 沐浴湯 李澤均

海州西瀛面仙山里 鄭在鎔

海州南門內 李雲植

海州北本町 吳壯植

海州北本町 崔□鎬

海州 藥種商 金容澤

天安驛前 湖西銀行天安支店 電話五三番

天安邑內 崔桂圓

天安邑內 永天堂大藥房 主任 金昌善

天安邑內 中山町 李完淑

天安邑內 洪□善

天安邑內 壽生醫院 李□□

天安邑內 代書業 尹貞來

天安驛前 柳濤

天安驛前 李京男

天安邑內 朴齊璟

天安邑內 韓永完

天安邑內 天安舘 主 李浣斗 方淡□

天安邑內 金漢益

天安驛前 金俊浩

天安邑內 李鎬烋

天安驛前 宋榮植

天安驛前 天安金融組合 電話一三番

天安邑內 代書業 李□來

天安驛前 李敬元

天安邑內 代書業 徐相奎

天安驛前 金永根支店 電話五○番

天安驛前 ㊀朝鮮運送部

天安驛前 百濟商事株式會社 金融 米穀運輸 電話一○六番

天安驛前 申泰鉉

天安驛前 ㊤運送店 主 崔鍾浩 電話一五番

天安邑內 文興堂印舖 主 李泰來

天安邑內 主 初同德 電話二八番

天安邑內 天安商店 主 金鶴植

天安邑內 天安青年會 電話一二三番

天安新町 尹鐘求

天安面職員一同

天安府天安面邑內 朝鮮料理 天眞舘 主 金淑烈

天安驛前 大成貿易株式會社 電話一二六番 振替京城一○二四三番

天安驛前 天興旅舘 主 李春貞

天安驛前 康寧旅舘 主 李康鎬 電話一七番

天安驛前 天鎭自動車部 天安鎭川間每日運轉 主任 □□□

ClibPDF - www.fastio.com

侍天敎主가 天子되야
계룡산에 도읍한다는 괴괴한 풍설이 또 류행

충청남도(忠南)에 잇는 계룡산(鷄龍山)이 리조 뒤에 정도령(鄭道令)의 도읍터이라는 어리석은 이약이가 만흔 곳임은 세상이 다 아는 바어니와 거의 긔억에서 사라질 터경인 요즘에 와서 또 괴괴한 풍설이 떠돌아 다닌다 지금 계룡산의 도읍터라는 신도안은 수천의 가호가 즐비하고 대궐터라는 곳에는 시텬교(侍天敎) 당집이 …… 대궐을 짓게 되엿스며 그 교도만 수천 명이 넘는다는데 명년은 갑자년(甲子年)임으로 조선은 뎡치뎍으로 독립하고 도읍은 계룡산 신도안에 정할 터이며 지금 시텬교 교주 김연국(金演局敎主)씨는 텬자(天子)가 되아 서그 …… 정사를 다 사릴 터이라고 괴괴한 풍설이 류행한다더라 (대뎐)

發明家? 詐欺犯?
계림뎐등사건의 뎐긔감뎡은 이십오일에 다시 하게 되엿다
點火는 되엿스나 七時間餘에 自滅

계림뎐등(鷄林電燈)사건의 뎐긔감뎡(電氣鑑定)은 미뎡과 가치 재작 이십사일 오후 두시경에 경성디방법원 뒤뜰에서 실행하게 되엿다 원래 이 사건은 발명(發明)이라는 데서 또는 지식(智識)이라는 데서 온 현금 복잡한 우리 사회가 나아노흔 사건이라 아직 그 범죄 여하가 판명되지 아니한 여러가지 문데에 따라서 이번 감뎡의 성적이

량호하면 죄인은 고사하고 훌륭한 발명가가 될 것이며 만약 그 성적이 조치 못하면 하는 수 업시 감옥에 와 콩밥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하야 이번 사건은 그만치 흥미가 잇는 사건이며 그와 동시에 일반의 주의를 집게 한 사건이다 그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뎐긔등의 설비가 업는 석골벽촌에서 간단한 몃가지의 긔계와 또는 얼마 아니되는 비용을 가지고 훌륭한 뎐긔등을 사용할 수가 잇다는 것이니 곳 일원의 약갑을 가지면 삼백 시간의 뎐긔등을 켤 수가 잇다는 것이라 피고 문창도(文昌都)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오 완연하고 똑똑한 사실이라 하야 이것을

실험하게 되엿고

데신국에서는 재판소의 부탁으로 하뎐(河田) 중천(中川)의 두 기사가 출장하야 이것을 감뎡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되매 피고 문창도는 간수에게 끌니어 검은 수염을 바람에 날니면서 초최한 얼골로 시험장에 나오게 되엿다 시험장에는 긴 그 데신국에서 온 두 기사와 이 사건의 담임인 삼시(三矢) 판사와 대원(大原) 검사며 기타 다수한 재판소 관리와 또는 피고의 가족 서자 모혀들어 이상스럽고 흥미만흔 눈으로 피고를 바라보게 되엿다 피고는 한숨 후- 하고 한번 쉬고는 사면을 바리보며 아홉시 동안이나 감옥살림을 하엿스나 오히려 정신이 잇서야 지하며 이번에 자긔가 발명을 …… 시험관(試驗官)의 기타 긔재를 손에 쥐게 되엿다 류리관에 류산(硫酸)과 초산(硝酸) 염산(鹽酸) 등으로 몃 가지 약을 너허 흔들고 흔들며 바라보면서 피고는 자긔를 보조하야 주는 박현병(朴天秉)씨와 함께 시험을 진행하엿다 시험이

진행될 때마다

그 류리관에서는 흔흔 빨간 연긔가 일어나기도 하고 흔흔 파란 불이 일어나며 흔흔 괴악한 냄새가 일어나서로 구경군들은 멧번이나 멀리멀리 뒷거름을 첫스나 오직 피고 하나만은 여전히 시험관에 매달녀서 시험을 계속하엿스며 따라서 자긔발명의 증명보커 애를 쓰게 되엿다 나중에 모든 약을 한곳에 모아 푸르스럼한 뎐액(電液)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것을 다시 뎐등에 너코 또 다시 그 우에 뎐선을 매달앗다 그리고 본즉 어느 결에 하야로 빨간

불송이가

반짝하며 공간(空間)에 나타낫다 이 때에 피고는 사면을 한번 바라보며 얼골에 일종 자랑하는 듯한 빗을 씌엇스며 판사와 검사들은 이상한 눈으로 우슴을 우스며 그 불송이를 바라 보앗다 이리하야 그의 발명하엿다는 뎐등은 불 켜지게 되엿다 그러나 이 불이 삼백 시간을 계속되여야 할 것인데 오후 네시에 켜진 불이 그날 오후 열한시 사십분경에는 그만 죽어바리고 말앗다 피고의 말이 이것은 뎐선에 고장이 생겨서 그와 가치 된 것이라 하야 작일에 또

다시 시험

을 하게 되엿스며 데신국 기사들도 다시 출장하야 그 뎐력(電力)의 분량과 그 약갑들을 감뎡하게 되엿다 한다

日間의 東南風은
환절재촉이다

룡음이 지터 갈수록 일기는 날로 더워가더니 사오일 전부터 돌연히 경성에는 뻐베로 사나운 동남풍이 부러오며 각금 가물구름이 하늘에 떠돌아 길에는 몬지가 날니고 사람에게는 수란한 심회를 도드와 준다 이에 대하야 경성측후소 당국은 말하되 요사히는 마침 느진봄 긔후로서 녀름 긔후로 옴겨가는 환절시임으로 그 세가 가장 농후한 때인 까닭에 바람도 불고 구름도 떠도는 것이나 결코 염녀할 것은 업스며 몃칠 안으로는 즉시 만주방면의 긔압이 나려질 것이며 그리되면 일기 점점 더워 갈 것이니 요컨대 바람 한 줄기 비 한 방울은 결국 일긔가 점점 더워가겟다는 보발군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보면 큰 틀님이 업슬가 하오 하더라

晉殿下小祥
오는 이십구일

양뎐하의 품에 안기어 세후에 행차 고국에 도라오시엇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진뎐하(晉殿下)의 소상은 오는 이십구일임으로 그날에는 청량리 어릉에서 제식이 거행될 터이며 당일에는 재종 등도 친히 참배하리라더라

白晝大道上에서 三十圓을 詐欺
종회에 차저가는 시골사람을 속여

시골사람을 속히어 먹는 불량배에게 피해를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매우 만타 강원도 삼척군 근곡면 하군천리(江原道三陟郡近谷面下軍川里) 십삼번디에 사는 안운당(安云堂)(一)은 안씨 종회에 참예하기 위하야 지난 십삼일에 경성에 올나와 종회사무소를 찻지 못하야 애를 쓰노라니 엇더한 자 하나히 낫타나 이 사를 친한 후 자긔도 안가이니 종회로 가자하야 시내로 열고 다니다가 상오 십일시경에 시내 …… 일백사십구번디 압에 와서 마츰 길에 떠러저 잇는 봉투를 집어 보니 그 속에는 백원짜리 지폐가 만히 드러 잇다고 그 입것는 중에 또 엇더한 자 하나이 낫하나 그 지폐 뭉치는 자긔가 떨어트렷든 것이니 돌녀달나 한 후 안운당을 보고 이 사람에게 고마운 신세를 갑하야 할 터인데 마츰 잔돈이 업스니 돈을 좀 주면 곳 밧구어 주마 하고 현금 삼십원을 밧아 가지고 교묘히 두 사람은 다 다라낫슴으로 이 보고를 드른 소관 종로서에서는 목하 범인의 간 곳을 엄탐 중이며 요사히 이가튼 교묘한 사긔수단이 점점 심하야가는 터이니 시골 사람들은 특히 조심할 필요이라더라

◇첫녀름의 서늘한 바람 —훈련원에서—

普校生溺死
평양뎐차뎐람회로 사람이 복잡한 중에

지난 이십삼일 오후 아홉시쯤하야 평양 대동문(大同門) 근처에는 뎐차뎐람회(電車展覽會)를 인하야 인산인해를 일우엇는데 그 때 동문밧 나루터 근처에서 아해 한 명이 물에 빠지어 큰 소동이 일어낫다고 한참 야단하는 가운데 순사와 의사(醫師)가 달녀왓스나 아해는 벌서 죽엇는데 이 아해는 평양 신양리 육번디 최정빈(崔貞彬)이라 하는 열네 살된 아해인바 방금 숭덕학교(崇德學校)에 통학하는 중이라더라 (평양)

大田勞働會
사월팔일에 모혀 노라

대뎐(大田)에 잇는 막버리군 수십 명은 지난 음력 사월 파일을 자미잇게 메이데이(五月一日)로 직히자는 뜻으로 대뎐 장터 로동회관(勞働會館) 압뜰에 모히여 로동악(樂)을 울니며 수백명의 로동자들로 모히게 하고 모다 입회비와 회비 일원 삼십전식을 장만하야 가지고 일제히 로동회에 입회하얏는대 그 회 부회장 리원녕(李源寧)씨의 간단한 식사 외 래빈 중에서 로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다운 살림을 하기 위하야 부르지즘에는 못하지 단결하야 싸호라 축사가 잇섯고 한잔의 술을 난훈 후 무사히 헤여젓다더라 (대뎐)

十二歲兒를 拷問致死
공보훈도가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두천(平山郡細谷面斗川) 공립보통학교 훈도 신현덕(申鉉德)은 지난 이십이일 오후 아홉시경에 그 보통학교 숙직실에서 자긔의 친족되는 열두 살된 아이를 따려 필경 죽게 되엿는데 그 원인인즉 신훈도가 자긔집 농우 한 머리를 팔어서 그 돈을 밧고 집에 두엇더바 어느 틈에 도적을 마졋슴으로 그 아해의 소위인가 하여서 학교 숙직실로 달여다 노코 사실하는 중에 그리 된 일이라더라 (남천)

授恩洞殺人犯
징역십오년언도

지나간 사월팔일 오후 열두시경에 시내 수은동 이십삼번디(授恩洞) 장택상(張澤相)씨집 고용으로 잇는 최경문(崔敬文)을 칼로 질너 중상을 식히고 또 그의 안해 김우겸(金又謙)을 칼로 질너 그만 무참히 사망케 한 안준식(安俊植)에 대한 사건은 지난 이십사일 오전에 경성디방법원에서 삼시 판사의 손으로 검사의 구형과 가치 징역 십오년의 언도가 잇섯다더라

京釜線北行車 隧道中에서 轢人
조선사람 남자를

작일 오전 열한시 이십분에 부산

絶島哀話 萬頃滄波에
생명을 달고 수백년동안을 살어오던 열세가구의 운명

갈마반도에 아침 안개가 걷치고 동해바다에 붉은 고은 아침해 원산항구에서 동북방으로 바라보면 하늘과 바다가 마조다은 수평선 상에 한 덩어리 검은 구름 가치 의희하게 보히는 것이 잇스니 이것은 고도(高島)라고 부르는 외로운 섬이다 그 섬 주위가 오 리가량 밧게 아니되며 토리가 척박하야 별로 나는 것도 업고 볼 것도 업스나 그 섬에는 벌서 몃백 년 전부터 사람의 집과 제견의 우는 소리가 울녀 왓고

지금에는

열세 집이 나되는 인가가 잇다 그네들은 무엇을 먹고 살며 무엇을 입고 사는가 또 자피가 무엇이며 희망이 무엇인가 그네는 커 물결 우에 떠단니는 갈마이와 가치 만경창파에 몸을 부치고 목숨을 부친 것이다 …… 그네의 던답이며 그네의 영원이다 고기를 잡아야 곡식도 밧구고 고기를 잡어야 치운 때의 솜옷과 더운 때의 삼베옷도 만드는 것이다 여름에 부듯치는 물결 소리는 그네의 음악이며 뜨는 달 지는 해에 금 가치 번득이는 물결은 그네의

화초일다

그네 중의 남자는 …… 바다 우에 노를 커으며 어 …… 몸을 부치고 망 …… 의외의 불행은 그네들의 권에 ……

다른사람

이 업슬 것이다 …… 그네들에게는 다 주도업고 소하 …… 그네의 권리와 가치 갑히 ……

일본사람

에게 …… (원산)

龍山의 驅蠅日
초하로보름으로

룡산경찰서에서는 …… 관계가 깁흔 파리를 미리부터 구제하기 위하야 새로히 계획을 세워 …… 실행키로 하엿는데 실행기간은 룡산 관내 매 초하로보름으로 …… 가지 비용은 …… 모화 쓰더기를 철비와 하수도 개수하는 …… 하야 비번상번순사를 권부출동하야 각처에 부쳐더니며 한달에 시일만이 철칭의 선권지를 이쇄하야 초하로보름에 ……

遊興費萬餘圓에
부호자식의 죄상이 탄로

(강면)

충청남도 련안군 자산면 동리(忠南……)에 사는 김 …… 남안 삼남 김 …… 외리에 백팔번디 …… 엿스며 그 동안 질탕히 논 일만원 …… 조화 …… 하야 결국 경성 부호의 아들 김동한은 …… 발작하야 ……

김동한은

일본법뎡대학(日本法政大學)까지 졸업한 사람이나 아직 세상물정 모르는 경솔한 사람이라 …… 사원 초순경에 김동한을 쇠여 어떤 덩긔취인(定期取引)을 …… 하면 한거번에 수십만원을 손에 너흘 수가 잇슨즉 너는 부호의 아들이라 너의 부친의 명의로 약속수형(約束手形)만 내이면 모든 일이 잘될 터이니 …… 하야 필경은 그의 허락을 엇어가지고 사원 십이일에 그를

인천으로

다려다가 한바탕 요리집으로 다리고 다니며 유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부친 김세제의 명의로 금 이만원의 약속수형을 만들어 그것을 북도 중매뎜(北島仲買店)으로 가지고 가서 덩긔취인을 부탁하엿다 그러나 필경은 그 중매뎜에서 거절을 당하고 다시 김동한을 쇠여 어반 복창인 모친의 명의로 인천부 외리(仁川府外里)에 잇는 기옥 한 채를 팔만오천원에 김동한이 가 사는 모양을 하고 그의 부친의 약속수형을 쓰게 한 후 가등긔(假登記)를 하야 수속을 마친 후

덩긔취인

을 한다하엿스 ……

物産奬勵의 脚本을 募集
선전에 쓰기 위하야

근 토산장려(土産奬勵)의 각사상을 시내 서대문뎡(西大門町)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奬勵會)에서 일반에게 철저히 선전하기 위하야 토산장려에 관한 연극(演劇) 각본을 모집한다는데 각본(脚本)은 아래와 가치 할 것이라는데 일반에게 널리 모집한다더라

一、 資料 는 조선물산장려에 관한 것으로 함
二、 樣式 은 근대극식(近代劇) 또는 시대극(時代劇)으로 함
三、 …… 는 한막으로 할 …… 효과(演劇的效果)가 …… 나타나도록 할 일
四、 行數 는 일행에 이십자식으로 함
五、 期日 은 오는 육월 십일안으로
六、 發表 는 그 관지 산업계(産業界)와 창간호로부터
七、 賞金 은 일등 한 사람 삼십원 이등 한 사람 이십원 삼등 한 사람 ……

河豚中毒頻々
내장을 주의하라

지난 십사일 오후 오시경에 의주군 고성면 신도동(義州郡古城面新島洞)에 거주하는 김병수(金炳洙)(一)는 그 섬(同島)으로 부터 배를 타고 신의주에 도착되는 동시에 밥을 사먹고 나오다가 …… 신의주에 도착하야 …… 대단히 고롭게 하다가 맛참내 먹은 후 …… 한 결과 …… 하얏는데 이 …… 남(長津洞에서 보이지 …… 별 구세웅(具世雄)의 원

頭痛거리의 不良少年
날마다 늘어가는 형편이다

요사히 불량소년(不良少年)의 발호가 심하야 각처에서는 매우 두통거리가 되는 중이다 우선 경성에서 보면 물론 그들이 이십이 못되는 것이다 아직 나히 어리니에 여러가지 못한 일을 하고 다니며 …… 되는 어린 사람들의 …… 업스나 …… 부터 큰 …… 이리하야 시내 …… 최승영(崔承永)이라는 …… 삼백구십구번디에 잇는 …… 목 …… 어 가는 것은 크게 근심되는 일이라 …… 아직 …… 할 …… 업다 시내 사직동 …… 리원군 등면 …… (鄭…)이 …… 회사에 …… 보증금을 먼저 내혀라하는 …… 하야 가 …… 에 잇는 …… 를 흥커가지고 …… 에게 …… 중이라더라

大田에도 또 개군
처음잇는 일이라고

대뎐군 회덕면 와동리(大田郡懷德面瓦洞里)에 사는 박진경(朴振?)(一)은 지난 이십일 오후 …… 라 (장면)

生活難으로 縊死
목매여 죽은 일본인

일본애지현(愛知縣) 사는 메사경 …… 는 곤난하야 그 안해와 조선에 건너와서 여러 해 동안 …… 도가 아득함으로 지난 이십일 오후 …… 권열시경에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高陽郡神道面紙杻里) 부근 산에 올나가 …… 목을 매여 죽엇슴으로 시체를 …… 경찰서에 …… 소관경찰서 …… 고소한다더라

장인의 눈을 베여
안해를 달나하는 사위가

황해도 은률군 이도면 고현리(黃海道殷栗郡二道面高峴里)에 사는 김시욱(金時郁)(一)은 자긔 자긔 장인 석찬명(石贊明)(一)의 다리 고 …… 모리 유업시 …… 막기고 도리감으로 …… 석찬명(石贊永)(二)는 그 잇흔날 당자를 다리고 김시욱을 차저가서 무죄한 처를 바리겟다 하는 무삼 …… 가하고 피차인다 …… 의관 …… 치료는 …… 경찰서 …… 고소한다더라 (은률)

飮毒墮胎하고
필경잡혀 취조

황해도 은률군 일도면 동림리(黃海道殷栗郡一道面東林里) 박송식(朴松植)의 처 오근애(吳根愛)(二)란 녀자는 그의 남편이 지금부터 오년 전에 …… 상해(上海) 방면으로 간 후 도라오지 아니함으로 혼자 집을 직히고 잇서 오든바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참지 못하야 더 지동면 두리(……里)사는 림범규(林範奎)란 자와 비밀한 관계를 맷고 지나오다가 필경이 아해를 배엿는데 이것을 남이 알가 두려워서 지난 이월 순에 약을 먹고 락태하엿든 바 …… 일이 발각되어 …… 잡히엿다 하더라

街上에 屍體
떠도라다니던 거지

지난 十四日 오전 …… 처음 시체를 …… 소 …… 안 …… 오십세 가량 되는 조선 남자의 …… 상해 …… 오십 사 번디 압 …… 바 …… 시 …… 거지가 …… 한결과 유리하야다니는 거지가 …… 으로 죽음의 원인이 …… 다더라

八、 撰者 는 근대극 협회 간부에 …… 케 씨

自轉車傷人

재작 이십사일 오후 …… 대관정(大觀亭) 근처에서 시내 …… 자뎐거를 타고 가다가 …… 를 치어 …… 중상을 …… 이다

電車事故

충청남도 …… 공주군 …… 던 …… 모 …… 의 …… 교(市營?)에서 …… 나갓다가 …… 에 시는 …… 다라

蓬萊町小火

재작 이십사일 오후 …… 봉래뎡(蓬萊町) …… 번디 …… 불이 나서 …… 진화되엿다더라

盲人觸傷

재작 이십사일 오후 …… 시 …… (竹添町) …… 봉사 …… 자동차 …… 에 부상하엿다는데 …… 치료 중이라고

麻川小火

지나간 이십일 오후 …… 마천(麻川) …… 번디 …… 가 …… 일만원의 손해를 …… 치료중이라고

天氣豫報

晴 一時曇	
日出 上午五時五十二分	日入 下午七時四十分

◆휴지통 이십오일 오전에 화부압에서 던차를 …… 극이다 엇던 사람이 …… 다가 차 …… 엇더 사람 …… 은 그것을 바어 …… 소이것이 던차표인 …… 사람이 …… 문압 …… 읍주고 …… 이러시오 …… 그것이 당 …… 파는것이 차표 …… 다 ▲그래서 …… 나한다

蚊帳(모기장)

安東仲買 仲買部 安東貿易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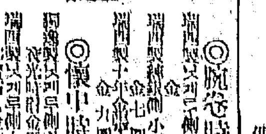
◎小兒 養育法無料進呈 兒寶 濟春堂

急告 英蘭貿易株式會社

感謝廣告

股主及實習生募集

各色染料製造販賣


機械堅固 價格低廉 ◎腕卷時計 ◎懷中時計
京城授恩洞百九十一番地 海昌洋行出張所

一圓四十錢均一特價賣出

世昌靴 的이美優

一般의愛用品!

體裁美라던지 耐久性으로보더 着用할사록 本品의優良한 것을알게됩니다

이것이世昌靴의特點!

한번맛추시면 永久히愛用하실줄 確信하옵니다

京城鐘路靑年會館內 世昌洋靴店 振替七八七八番

◇童話◇ 길남이와순녀

상희(寄書)

여러해전옛날에 엇던 산골에 길남(吉男)이와순녀(順女)라는 두아희가 잇섯슴니다 길남이는 뒤집에잇섯고 순녀는 압집에잇서서 한오라비오누이처럼 정이 조왓슴니다 어려서부터 두아희는 서로자라도하고 지냇슴으로 나희를먹은뒤에도 정이 드는것입니다

순녀가 열다섯살을먹든 설날된 날음날밤에 길남이는 순녀의집에 놀너갓슴니다 그런데 가면 반가워하며 마저줄 순녀가 그날저녁에는 근심잇는얼골로 마저주엇슴니다 길남이는 다른여러가지이야기를하다가 순녀가 근심하는것을 물엇슴니다 순녀는 길남에게 때입은 버가 열다섯살을 먹는날밤으로 그런다고하엿슴니다 그러나 길남이는 그밤의뜻을 알아듯지못하고 이상하여 다시물엇슴니다 순녀는 다면서 사가서 이야기하엿슴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해마다 음력정월에 한가지 이상한일이 잇섯슴니다 설날에 열다섯살먹은 처녀중에서 데일어엽븐처녀를 한사람이 그런로가는지 업서지는것이엿슴니다 무엇이와서 붓잡아가는지 혹은 도망하는지 그럿타할수업섯슴니다 그럼으로 그때까지 여러어엽븐처녀들이 간곳이업서지엿슴니다

八處指定面 協議員選擧

民大論山郡部

民大瑞興郡部 大會決議로設立

河東教育會 盛況인創立會

白丁解放運動 金堤에曙光會

民大地方支部準備

南面私普校落成

三思耶蘇教堂落成

寧邊市民運動會期

金陵學院女子夜學

李烽彬女史의寄附

价川酒造組評議會

大成中學委員一行

少年紀念演藝會

靑陽少年體育會

禮友會創立總會

民大資城郡部宣傳

宣川에도少年軍

禁煙興産組合創立

祝 千號

京城府鍾路 綢緞布木商 京城商會 主 金潤秀

信友養蜂園 / 回春堂醫院 / 信友洋靴店 / 金泰燦 / 主日學校 / 趙性夏 / 雲山北鎭料理組合 / 金善主 / 盧載春 / 李翼珪 / 文應潤 / 李遠鍾

漣川郡西南面事務所 面長 尹璧重 會計員 尹錫禹 朴守岩 李雄翼 張樂豐 書記 金完杜

李輔星 / 黃德玄 / 朴勳永 / 永濟醫院 公醫 朴泳洙

濟世醫院 醫師 方合信 / 三信商會 / 朴承學 / 升山自轉車商店 主 朴漢培 / 信川自轉車商店 / 趙啓燦 / 元鍾淳 / 金濟奎 / 金奎淳 / 金炳三 / 裵昌燮 / 朴應鶴 / 崔錫福 / 金之鍊

職員一同 / 金允杜 / 金河根 / 李永龍 / 求禮郡院村校 訓導 李曾烈 金大闢 孫元 / 尹致泰 / 金錫烈 / 高光凡 / 金源植 / 金東坤 / 金鍾顯 / 金暎 / 馬龍河 / 曹秉然 / 高炯龍 / 金澤淳 / 華嚴寺

金永泰 / 朴大圭 / 金一濟 / 金龍鉉 / 鄭揆朝 / 朝鮮日報社出張所長 丁河泰 / 吳丙岳 / 金秉斗 / 金東根 / 朴準教 / 金庚錫 / 孫在燮 / 朴達杜 / 鄭淳達 / 潭陽鳳安學校 職員一同 / 海陸物産 米糓雜穀 委托賣買 潭陽驛前 運送部

東昌洋服店 / 柳琛雄 / 呂運律 / 職員一同 / 張壽燮 / 潭陽金融組合 / 白興基 / 潭陽郡武面事務所 職員一同 / 潭陽郡貞面事務所 職員一同 / 車成熙 / 潭陽郡廳